

학술대회

“부마민주항쟁 개요 및 부산지역 5.18운동 전개”

일시: 2015년12월16일 오후3시

장소: 부산민주공원 기획전시실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민주연구단체협의회*

주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연구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 4.3연구소

<학술대회>

‘부마민주항쟁 개요 및 부산지역 5.18운동 전개’,

<전시 개막식 >

‘응답하라 1979’ 그날의 항쟁지도와 항쟁일지

진행순서

시간	내용	발표·진행자
3:00	개회, 행사안내	이동일(민주공원 교육문화팀장)
3:10	인사말씀	우무석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함종호 (민연협 상임대표) 문정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3:30	<발표1> 5.18항쟁과 부산의 민주화운동	차성환
3:50	‘응답하라 1979’ 전시 개막식 개회	이동일
3:55	행사기획의도 발표	김하원(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4:05	전시기획과 전시내용 발표	박상호(예술지구P 아트디렉터)
4:15	<발표2> 부마민주항쟁 항쟁지도와 항쟁일지 작성 보고	김성선(민사연 연구원)
4:35	지정토론	이광호, 장병윤
4:40	자유토론	참석자
5:00	폐회	이동일

5·18항쟁과 부산의 민주화운동

- 1980년대를 중심으로

차성환(부산대 사회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1. 머리말

1980년 5월의 5·18항쟁이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추동했던 결정적 역사 경험이었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그러한 경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어떻게 당시를 경험하지 못한 집단과 개인에게 전달되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당시 5·18항쟁에 참여하였거나 목격했던 광주시민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추체험할 수 있었는지는 민주화운동의 주체 형성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고찰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5·18항쟁이 1980년대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은 1979년 부마항쟁의 경험을 가진 지역으로서 5·18항쟁의 경험을 받아들임에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감수성이 있었을 터이지만 5·18항쟁이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5·18항쟁이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집단과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체로 어떤 충격적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의 기억투쟁은 곧바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투쟁의 양상은 억압적 상황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진행된다.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개인은 어떤 정보와 해석이 옳은 것인지 판단에 혼란을 겪으며 상당 기간 판단 유보의 상태에 빠지거나 불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많은 경우는 사건에 대한 공식적 기억 곧 집권세력의 해석과 기억만을 접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수용하기도 한다.

5·18항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5·18항쟁은 광주라는 지방도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삼시간에 대중적 봉기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였기 때문에 곧바로 신군부에 의해 보도가 통제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차단되었다. 이어서 공식 보도매체는 신군부의 일방적 발표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객관적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없었다. 항쟁의 진실을 둘러싼 기억투쟁은 그 이후 지금까지도 부단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5·18항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항쟁 당시부터 5·18항쟁의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

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1980년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참여자(이하 참여자로 표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5·18항쟁의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애를 먹었다. 다만 그들은 5·18항쟁 이전부터 독재와 신군부의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보다 정치적 판단력이나 상상력이 더 나왔던 점이 달랐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5·18항쟁이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집단과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간과 사건을 중심으로 4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는 5·18항쟁이 일어난 1980년도이다. 이 시기에 부산의 참여자들은 신군부의 5·17쿠데타(계엄확대)에 따른 대대적 예비검속에 걸려 구금되거나, 구금되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는 5·18항쟁의 진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쫓겨난 것을 추구하고 유인물을 살포한다. 어떤 경우든 5·18항쟁의 진상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두 번째는 5·18항쟁 다음 해인 1981년에 발생한 부림사건, 세 번째로 1982년에 발생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하 부미방으로 표기)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네 번째는 1987년 6월항쟁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1980년대 부산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구술자료를 근거로 각 시기마다 5·18항쟁이 각 사건의 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5·18항쟁의 기억투쟁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의 바탕이 된 구술자료는 2008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구술자료 1건와 5·18기념재단이 주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부산지역 5월운동사 조사 및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구술자료 39건으로 총 40건이다.¹⁾

2. 5·18항쟁의 발발과 부산

1) 5·18항쟁에 대한 부산 참여자들의 인식

1980년 5월, 5·18항쟁이 광주에서 발발하자 신군부는 계엄사의 발표를 통해 5·18항쟁이 폭도와 불순분자의 난동이라고 규정했다. 진실과는 정반대의 이러한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을 구술자 이영남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그날은 내가 저 오후에 그 라디오를 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들은 적이 있어서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그때는 라디오고 뭐고 뭐 폭동이지 뭐. 폭동. 그라고 인자 뭐 사상자도 1명 있었다 했나? 뭐 2명 있었다 했나? 이랬고. 그러니까 인자 이거는 완전히 광주에서 언자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언자 그 계엄군이 가서 지금 뭐 이래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큰 소요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

1) 2008년에 1명, 2012년에 10명, 2013년에 14명, 2014년에 15명의 인사가 구술에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 그러니까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그 이상은, 그러니까 그 뒤에 밝혀진 만큼이라고 할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죠. 결국에는. 뭐,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광주를 벗어난, 그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²⁾

일반 시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계엄사의 발표를 반신반의하면서도 받아들였다면 참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그것을 불신했다. 계엄사의 발표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산의 참여자들은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승원 신부(양정성당 시무, 당시 40세)는 언론 보도를 불신했기 때문에 신도의 집에서 본 일본의 TV방송을 통해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³⁾ 당시 부산에서는 지역에 따라 일본의 TV방송이 수신되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희옥(부산양서협동조합 전무, 당시 31세)은 양서조합원이었던 지인에게 광주의 소식을 들었다. 그 지인은 전라도 사람으로서 전화를 통해 광주 상황에 대해 교신하면서 그 소식을 김희옥에게 알렸다.⁴⁾ 홍점자(노동운동가, 당시 29세)는 광주에서 탈출해 부산으로 온 JOC 후배를 통해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세실리아라는 세례명을 가진 그 여성은 광주가 봉쇄되기 직전 탈출했는데 5·18항쟁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심리적 충격 때문에 물조차 잘 넘기지 못할 만큼 탈진해 있었다고 한다.⁵⁾

이홍록(변호사, 당시 41세)은 후배이자 학생운동가이던 이호철에게 5·18항쟁의 소식을 듣고 사태를 파악했다고 한다.⁶⁾ 기자였던 임수생(국제신문 기자, 당시 40세) 역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국제신문은 광주에 김양우 등 4명의 기사를 특별취재반으로 파견했다. 이들의 취재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검열 때문에 제대로 된 기사가 나갈 수 없었다. 김양우 기사는 계엄사의 검열관을 속여 「주간국제」라는 주간지에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서 광주시민들을 폭도가 아니라 무장 시위대로 표현했던 점 등이 뒤늦게 계엄당국의 분노를 사서 필화사건에 휘말릴 뻔 했으나 부사장의 경위서 작성으로 그쳤다고 한다.⁷⁾ 조태원(부산대학생, 당시 25세)은 5·17 비상계엄확대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전검거가 되어 구급에서 풀려날 때까지 5·18항쟁 소식 자체에 접할 수가 없었다.⁸⁾

이상의 사례들은 참여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5·18항쟁의 진실에 접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방식은 일본 TV방송의 청취 외에는 모두 구전(口傳)을 통한 것이었다. 이는 사태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시간적 거리가 짧아 항쟁의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미처 개발될 수 없었던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2)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13.

3) 박승원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0. 25.

4) 김희옥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0. 22.

5) “이야기하면서 이 물을 삼키면, 요기서, 목에서 꼬로록 … 하면서 잘 넘어 가지 않더라고요.” 홍점자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1. 16.

6) 이홍록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1. 10.

7) 임수생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2. 8.; 김양우, 1996, 『시민군 계엄군』, 종로서적, 38-41쪽.

8) 조태원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8. 19.

그리고 사태의 진상에 접한 참여자들은 모두 신군부의 만행에 치를 떨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무력감을 느꼈다. 박승원 신부는 항쟁이 종료된 직후 다른 신부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한다.⁹⁾

2) 5·18항쟁과 부산의 투쟁

한편 계열사의 일방적 왜곡 발표에 대항하여 5·18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쟁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먼저 김재규를 중심으로 한 젊은 운동가들은 5·18항쟁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시내에 살포했다. 여기에 참여했던 문정현(부산양협회원, 당시 27세)은 5·18항쟁의 진상을 알리는 근거자료로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활용되었으며 서울에서 활동하던 가톨릭농민회 간부 이병철이 부산으로 와서 항쟁 상황을 전달했다고 증언한다.

당시에 인자 그 재규 형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인자 그, 그 『뉴스위크』지에서 그 곤봉 가 때리는 그런 사진을 우리가 그때 그 보고 그러고 거기에 인자 광주로 갈, 갈려고 계획도 잡았는데 그 뒤에 소식이 인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아예 그, 그래 가 인자 뉴스 한 장 안 나오고, 한 자 안 나오고 이래서 그 인자 이 광주사태를 알리는 인자 유인물 뿌리기로 헨 기억이 나는데 그, 그래서, 인자 그 김재규를 대장으로 해서 인자 유인물 어떻게 뿌리고 이런 거를 그 진행을 했죠. 그때 서울에 있던 이병철 형이 와 가지고 인자 그 유인물을 작성하게 되는데 … 이병철 형은 인자 같이 유인물 뿌리지는 않고 뿌리는 내용을 인자 그 정리해 주고 갔죠.¹⁰⁾

김재규 그룹은 유인물을 살포하기 위해 남녀 각 1명씩 2명이 1조가 되도록 조직했다. 남녀가 1조가 되면 아베크죽으로 보여 군경의 검문을 피하기 쉽고 혼자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살포조는 박찬성-손정염, 문정현-진기순, 박행원-(성명미상)여성 등과 김재규, 박홍숙, 고호석, 허진수 등 총 11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포 방법은 서면 등지의 건물 위에 올라가 살포하고 신속히 대피하거나 버스에 탄 후 내리면서 버스 환기구 위에 유인물 뭉치를 놓고 내려 버스가 출발하면 자동적으로 살포되게 하였다. 당시 살포 장소는 서면과 남포동 일대였다.¹¹⁾ 김재규 그룹의 투쟁은 수사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으나 이후 부림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다음으로 동아대 출신의 교사였던 신종권을 중심으로 동아대 학생들과 고신대, 수산대 학생들을 규합하여 시위를 계획했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검거된 그룹이 있었다. 이 그룹에 참여했다가 검거된 이광호(동아대학생, 당시 27세)는 신종권, 이평수 등과 같이 시위를 모의하면서 5·18항쟁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9)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0. 25.

10) 문정현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0. 5.

11) 차성환, 「부산지역 5·18항쟁과 그 의의」, 부마항쟁심포지움 자료집(2013.10).

신종권 선생이 이평수 씨하고 저의 집에 찾아와서 ... 광주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딱 지역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대로 가면 광주가 다 죽으니까. 부산에서도 광주와 같은 시위를 준비하자. 그런데 지금 부산대 애들, 친구들은 부마항쟁을 주도했던 친구들은 다 지금 잡혀갔다. 예비검속이, 이쥬. 다 잡혀가고, 남은 인원은 동아대하고, 고신대하고, 수산대다. 그래서 이걸 기획해서 부산에서 시위를 하면 그 신군부의 어떤 그 관심이 분산되지 않겠는가. 저렇게 저런 식으로 폭압적으로 살상을 벌이지는 않을 거다. ... 그때 우리가 같이 그 광주를 바라보면서 합의한 시각은 뭔가 하면은 신군부의 등, 등장을 저지하고, 유신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신군부의 등장을 저지하면서 광주의 학살을 중지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건 아주 명쾌했어요.¹²⁾

이 계획은 5월 20일 이전에 세워졌고 모의과정을 거쳐 5월 25~26경에 시위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종권, 이광호, 이평수, 김덕오 등 6명으로 동아대학생이거나 졸업자들이었다. 이 그룹의 계획은 부산대학의 학생 지도부가 사전 검거되어 부산대학생들의 동원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동아대학교와 수산대, 고신대 학생들과 연합하여 시위를 벌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계엄합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고신대와 수산대 학생들은 연루되지 않았고 동아대학생들만의 계획으로 처리되었다.¹³⁾

다음으로 부산대학생 그룹이 있었다. 부산대 학생운동 씨클(일명 사랑공화국)의 노재열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학생들은 부산 시내 중심가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였다. 『부산민주운동사』에 의하면 부산대생 노재열, 김영, 배정렬, 김경희 등은 5월 19일 하오 7시경, 작성한 유인물을 소지하고 부산의 도심지인 남포동, 광복동으로 향했다. 이들의 목표는 유인물 살포만이 아니었다. 당시 군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학생운동 지도부는 휴교령 등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 전체 학생이 학교로 집결하여 시위에 돌입한다는 약속이 공유되어 있었다. 하지만 막상 5·17계엄확대조치와 휴교령이 내려지자 광주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도 집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산의 경우, 5월 17일 자정 전후로 대부분의 학생지도부가 검거되었다. 검거를 피한 노재열 등의 학생 리더들은 다시한번 도심 시위를 시도기로 했다. 노재열은 후배들과 함께 유인물을 만드는 한편 연락이 가능한 선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도심지 현장에 동원했다. 유인물 제작에 5월 18일 하루가 소요되었고 거사 시각은 5월 19일 저녁 7시 45분에 유인물 배포와 함께 시위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이 워낙 살벌하고 감시밀도가 높아 시위가 어려웠으므로 유인물 살포에 그쳤다. 이때 살포한 유인물에는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비난에 초점이 맞춰졌고 광주의 상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는데 유인물 작성을 주도한 노재열에 의하면 광주의 상황은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재열은 일본TV방송을 통해 5·18항쟁을 알고 있었지만 5월 19

12)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1. 28.

13) 차성환, 위의 글

일 부산에서 도심 시위가 일어나면 부산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별히 광주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⁴⁾

(일본) TV에. 거기에, 마, 사람 맞아 죽고 피범벅이 되고 한 게 뉴스에 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문도 인제 흥흥하게 인제 돌고. 그래서 그런 걸 지금처럼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대충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도, 부산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남포동에서 인제 유인물 뿌릴 때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안했어요. 그때 영이하고 우리 세 명은 인제 이거 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인지 그 지금 그 부산극장 앞에 그 큰 도로에 아마 군용 트럭이 수십 대가 늘어서 있었고, 경찰 아, 아니 군인들이 전부 서서 착검을 하고 트럭 하나에 2, 30명, 1개 분대, 1개 분대가 열 몇 명이잖아, 한 2개 분대 스무 명 정도 되는데, 그 전부 착검을 하고 전부 있었어요. 이 상태가 짝 있었고, 그걸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유인물을 뿌리고 데모를 한다 했으니까. 그, 살아,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못 하지요.¹⁵⁾

결국 노재열 등은 시위는 불가능했지만 유인물 살포는 결행했고 노재열, 배정렬은 일단 피신에 성공했으나 김영과 남경희(부산대학생, 당시 20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¹⁶⁾

다음으로 5·18항쟁의 소식은 알지 못한 채, 신군부의 5·17계엄확대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시내 중심가에서 살포하려다가 검거된 이우주, 강용현 그룹이 있었다. 이들은 함께 야학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5월 18일 시내 중심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유인물 살포를 시도했다.¹⁷⁾ 당시 이들은 5·18항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분노와 도심 시위에 대한 공유된 약속을 믿고 유인물 살포를 계획했으나 미수에 거쳤고 이우주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강용현도 후에 자수하였다.¹⁸⁾

이상에서 본 것처럼 5·18항쟁의 진실을 알리고 투쟁을 촉구하려 한 참여자들은 『뉴스위크』 같은 외국매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일본TV방송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함께 상황을 토론하고 집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토론은 부족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도 필요하였던 것이다.

3. 5·18항쟁과 부림사건

14) , 위의 글

15) 노재열 구술, 차성환 면담, 2008. 8. 7.

16) 남경희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2. 9.

17) 이우주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8. 19.

18) 차성환, 위의 글

1) 부림사건 주체들의 5·18항쟁 인식

1981년 부산에서 터진 부림사건은 당시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 주요 활동가들이 대거 검거되고 그 파장이 매우 큰 사건이었다. 부림사건의 주체들은 5·18항쟁의 진실에 어떻게 접하고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술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송세경(양서조합원, 당시 29세)은 5·18항쟁에 대한 계엄사령부의 발표나 언론보도를 믿지 않았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 알 수 없지만 5·18항쟁이 폭동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유신체제 하에서 광주 사람들이 보여준 투쟁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¹⁹⁾

송병곤(부산대학생, 당시 23세)은 당시 누구에게선가 5·18항쟁을 보도한 『뉴욕타임즈』 지를 받아서 번역을 했고, 선배인 김재규가 소개한 광주에서 온 어떤 사람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신군부가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²⁰⁾

박옥영(노동자, 당시 24세)은 언론을 통해서도 5·18항쟁의 보도를 접하지 못했고, 광주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함께 시위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누군가에게서 받고 광복동으로 나갔는데 계엄군이 깔려 있어서 시위를 못했다고 기억한다. 그날 도심에 유인물이 뿌려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로 미루어 5월 19일에 광복동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부산공전 재학 중 야학활동을 했으며 그 무렵에는 노동현장에 투신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²¹⁾

이상경(부산대학생, 당시 23세)은 5월 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가 내린 직후 집에서 연행되어 계엄합수부로 끌려갔다. 거기서 모진 고초를 겪고 이후 헌병대로 이관되었을 때, 어떤 병사가 5·18항쟁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여주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광주에서 폭동, 소요가 일어나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므로 사태가 짐작은 되었으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해 매우 답답하게 느꼈다고 한다. 다시 생각해 보니 5·18항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는 계엄합수부의 수사관들도 뭔가가 껴여있었고 조사도 대충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²²⁾

이호철(부산대학생, 당시 23세)은 5월 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가 내린 직후 피신을 했다

5·18항쟁이 진압된 후 광주로 간다. 당시 몸담았던 씨클(사랑공화국)에 광주 출신의 후배가 있어서 만나러 가서 며칠 간 묵으면서 5·18항쟁 때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²³⁾

전중근(노동자, 당시 24세)은 당시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5·18항쟁의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울산 지역 선배들의 소식통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

19)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8.

20) 송병곤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1. 23.

21) 박옥영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1. 13.

22) 이상경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7.

23) 이호철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2. 23.

고 있었다고 한다.²⁴⁾

주정민(부산대학생, 당시 24세)은 5·18항쟁의 소식을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선배인 고희석이 『뉴스위크』지의 일부를 복사해 갖고 왔을 때였다. 거기에 보니 사진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짚차에 총을 들고 올라타고 있고 ‘전두환, 찢어죽이자.’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때 비로소 5·18항쟁의 상황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고희석은 『뉴스위크』지의 복사물을 같이 살포하자고 제안했지만 주정민은 두려워서 할 수 없었다고 한다.²⁵⁾

설동일(농협직원, 당시 25세)은 5·18항쟁의 소식을 듣고 당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많이 답답했다고 기억한다.²⁶⁾

2) 5·18항쟁과 부림사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부림사건 주체들도 『뉴욕타임즈』지나 『뉴스위크』지 등 외신보도를 통하거나 구전을 통해서 항쟁의 소식에 접했다. 이는 부림사건 주체들이 대부분 5·18항쟁 발발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1981년에도 5·18항쟁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로 되어 있었던 사회적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부림사건의 주체들은 모두 5·18항쟁에 대한 당시의 언론보도를 불신했고 사태의 진상에 접하면서 분노했고 나름대로 저항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림사건은 그 주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주체적으로 조직화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이 사건은 공안당국이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소탕하기 위한 기획을 갖고 상호 연관성이 부족한 사건과 인적 관계를 엮어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었다.²⁷⁾ 사건의 명칭인 ‘부림’이란 것도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터진 ‘학림사건’을 본따 ‘부산의 학림사건’이란 뜻으로 공안당국이 창작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부림사건 주체들은 5·18항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분을 느꼈지만 목적의식적으로 5·18항쟁과 직접 연관된 투쟁을 한 것은 아니다.

4. 5·18항쟁과 부미방 사건

1) 부미방 사건 주체들의 5·18항쟁 인식

부림사건 다음 해인 1982년 3월에 터진 부미방사건은 부림사건과 달리 5·18항쟁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먼저 부미방 사건의 주체들은 5·18항쟁의 진실에 어떻게 접하고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문부식의 경우 부터 살펴보자.

24)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1. 15.

25) 주정민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2.

26) 설동일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0. 23.

27) 고희석, 2011, 「부림사건」, 민주연구단체협의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문부식은 5·18항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1980년 5월 17일 계엄군에게 붙들려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 후배의 군종목사 시험을 지원하러 서울에 왔던 그는 우연히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내린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후배와 함께 계엄군에게 불문곡직 구타를 당한다. 군부의 별거벗은 폭력 앞에 노출되었던 개인적 경험은 생생한 공포로 그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곧이어 터진 5·18항쟁은 그에게는 단절감과 무력감으로 다가왔다.

어, 단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광주야 정말 뉴스 속에 그야말로 편집된 뉴스 속의 광주. ... 5.18의 뭐 실상 혹은 뭐 광주에서 10일간 진행됐던 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 뭐 이거야 그야말로 차단돼 있었던 거고 편집된 뉴스를 통해서 인제 접근하는. 그래서 그 실제 자체를 명확하게, 뭐, 그, 그 동시간대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뭐 역사의식 혹은 뭐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 크리스찬, 어쨌든 크리스찬으로서 도대체 이 시대를 뭐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하거나 맞설 수 없는 어떤 데에 대한. 제일 큰 건 무력감이었던 것 같고요.²⁸⁾

그러면서 1980년대 초반 문부식과 고려신학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5·18항쟁의 이미지는 여전히 신비화와 과장의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문부식의 의식 속에서는 학살의 시대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윤리적 의무감이 강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그 이후에 부산 지역에도 뭐 뭔가 인제 그 5·18, 그러니까 뭐 2,000명이 죽었다. 뭐 그 다음에 인제 어떤 그 어떤 때는 조금은 신비화되고, 뭐 좀 과장된. 또 어떤 거는 거꾸로는 굉장히 더 범죄에 실제적인 양태보다 더 인제 뭐 그 임산부를 뭐 이 썩서 죽이고 뭐 일부러 끄집어내고 이런 유의 인제 그로테스크한 어떤 권력의 만행들,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어떤 전체적인 실체와 성격 규정, 이런 게 아닌 채로 인제 다니는, 이야기들 정도에서 상당히 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 전체적으로 그 항쟁의 성격을 뭐 토론하고 정리된 것이 설사 부산 운동권 중심부에서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저희까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까지 오지는 않았고 5월이 지나고 인제 이 진압이 되고 이후에 인제 어, 이 뭔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도대체 인제 어쨌든 아무리 인제 총체로서의 역사관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학살의 시대, 그러니까 인제 그런 군부에 의한 그 물리적인 어떤. 또 내가 또 몸으로 인제 짧은 순간이지만 얻어맞으면서 깨달은 인제 그 권력의 무시무시함. 어 뭔가 인제 좀 저항을, 저항이라기보다는 좀 뭐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고신대에서도 구체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인제 저희가 뭐 겨우 할 수 있는.²⁹⁾

28)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1. 1/ 12. 1.

구술자는 5·18항쟁의 실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고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런 폭력과 학살을 자행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느끼게 된다.³⁰⁾

부미방 사건을 촉발시킨 또 하나의 조건은 전두환 정권에 의한 ‘5·18 지우기’였다. 전두환 정권은 5·18항쟁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5·18과 관련한 기억을 상기하지 못하게 봉쇄했다. 광주미문화원방화사건(이른바 광미방)이 언론에 의해 단순 실화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른바 환기력의 문제가 나온 것이다. 웬만한 충격적 사건이 아니고는 결코 표면화되지 않는 억압이 존재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미방사건은 광미방사건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 아니면 5·18의 기억을 환기할 수가 없다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광미방사건은 사람들의 출입이 끊긴 야간에 방화가 실행되었지만 부미방사건은 대낮에 사람들이 들어있는 공간에 방화를 시도했고 그것을 촬영해서 외신 등 언론에 직접 보내려고 기획이 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문부식은 재판 중에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³¹⁾

나는 군부정권의 비민주적 작태를 고발하고 싶었고 또 미국정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싶었으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어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길이 없었다. 한국의 언론은 정치권력의 폭력을 합법화시키는 도구로 전략해 있다. 광주 미 공보원 방화사건도 보도가 안 됨으로써 한국 국민의 항의의 뜻이 묵살되었던 것이다. 다른 길이 없었다.³²⁾

다음으로 최인순(부산대학생, 당시 20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술자는 고교 3학년 때 부마항쟁이 있었으나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5·18항쟁은 대학 1학년 때 들었지만 구체적인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 탈출연합동아리에 참여하여 서울과 광주를 방문하여 서울대생과 전남대생들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한 전남대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5·18항쟁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광주에서 만났던 애가 이름이 정영정인가?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 광주에서 만난 애가 그 때 내가 광주에 갔을 때 광주민주화항쟁에 관련된 유인물을 하

29)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1. 1/ 12. 1.

30) 이에 대해 문부식은 “‘광주’는 나에게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 보니 이 질문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의 삶에서 볼 때는 언제나 내가 ‘광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광주’가 내게 질문을 던져 왔기 때문이다. 참혹한 학살의 기억 속에서 ‘광주’는 내게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라고 술회한다.(문부식, 2002,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 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삼인, 94쪽)

31) 차성환, 2014, 「5·18항쟁과 부미방 사건」,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32) 김은숙, 1988, 『불타는 미국』, 아가페, 63쪽.

나 줬어요. 하나를 주면서 친구하고 선배들이 광주에서 죽어갈 때 자기는 겁이 나서 광주에서 도망쳐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었었어요. 그리고 그 유인물을 나한테 줘서 제가 그 유인물을 갖고 있다가 우리 그 사랑공화국 소모임이 그때 ... 어디더라? 그, 진준가? 어디에 야유회 겸 같이 학습을 하러 갔을 때가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그거를 보여 줬는데, 아, 선배들이 놀래면서 그것을 태웠어요. 이래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 전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다들 알고 있었는진 모르지만 나로서는 영정을 통해서 처음 그 충격적인 실상을 인제 볼, 볼 눈과 들을 귀가 트인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줬었고 근데 친구들은 그게 친구나 선배들은 이게 위험한 거다 라고 하면서 태웠고 제가 그 광주를 체득한 것,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영정이한테서 받은 유인물을 통해서라고 봐야죠. 그 이전에는 이게 추상적이었어요. 나한테는, 예. 추상적이었고 내가 시위를 했고 뭐 그런데도 나한테 정확한 기억이 없어요. 광주에 관련된 기억이 ...³³⁾

구술자에게 5·18항쟁의 기억은 한 전남대생이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감정이입이 되었고 그를 통해 비로소 현실감을 얻게 되었다.

그때 그 영정의의 아픔이 온전히 내 것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정이입이 다 됐었던 거 같고, 어, 그 원래 비관적인 정서, 그 다음에 냉소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내 ... 내 기본적인 정서나 이렇게 뭐 그런 거 었었는데 이게 거기에 더하여 되게 세상이 슬프고, 비관적이고 그러면서 우울하고 분노에 가득 차고 뭐 이랬던 거 같아요. 예.³⁴⁾

구술자는 이후 문부식과 만나면서 함께 학습을 했고 그런 것을 통해 5·18항쟁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되었다.

그 양산 모임에서 중요한 얘기가 광주에 그 ... 병력이 파견되기 위해서는 그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광주에 병력을 파견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있거나 적어도 묵인은 있어야만 병력 파견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전시작전권 얘기를 처음 들었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저는 ... 그 광주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³⁵⁾

다음으로 류승렬(부산대학생, 당시 20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술자는 고3때 부마항쟁이 있었지만 큰 관심이 없었고, 대학입학 후인 1980년에 5·18항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사회과학 서적도 읽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상황이었다.

33)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3/ 11. 1.

34) 최인순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3/ 11. 1.

35) 최인순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3/ 11. 1.

5·18이 나자마자 바로 그 이권 아니다. 그 동안에 그 억눌려 있던 사회에 대해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또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권리 이런 것을 갖기 위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것을 북한의 남침위협으로 연계, 연결 지어가지고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바로 들었죠. 이권 아니다, 정말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될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³⁶⁾

그런데 구술자는 5·18항쟁의 구체적 진상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정보를 그대로 다 믿지는 않았다. 그것은 구전을 통한 정보의 전달이 내포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5·18항쟁의 의외성 때문일 수도 있다.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뭐 '광주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더라, 군인들이 뭐 그 학살했다더라.' 그리고 거서 '무장봉기 ... 총 들고 대항하고 있다더라.'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대충 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자기들도 가서 본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이야기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 어쨌든 나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텐데 그 중에는 특별히 격분해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심하게 항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총돌이 일어나고 총돌이 일어나면 분명히 지금 같은 계엄 상황에서는 피를 볼 것이다. 광주에서는 그게 현실화 됐구나. 근데 부산이나 서울 이런 데서는 왜 분노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대학생과 시민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 하는가. 내 자신조차도 지금 비겁해서 군인들 눈치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숨죽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³⁷⁾

구술자는 전해지는 정보를 다 믿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사태의 윤곽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런 인식은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겁하다고 느끼는 자괴감으로 이어졌다. 그런 자괴감, 부채감이 이후 부미방 사건에 참여하는 심리적 동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이미옥(고신대생, 21세)에 대해 살펴보자.

구술자는 1979년도 고 3때 부산사대부속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부마항쟁 당시 부산대생들의 데모 광경을 본 기억이 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재수를 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접한 5·18항쟁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아, 그때 제가 재수할 때였는데 5·18 광주사태 때는, 제가 인자 그냥 TV에 나오는 그런 거 보고 그때 당시 거의 뭐 폭도로 나왔으니까 그 TV 내용은 그런갑다 했는데, 사실은 저는 폭도라고는 생각까지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부마사태 이런 걸 보고 이랬고 대학생들 데모 이런 거 아까 뭐 그런 걸해서 아마 이거 민주화와 관련된 어떤 운동인데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³⁸⁾

36)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3.

37) 류승렬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3.

구술자는 고신대에 입학한 후 문부식이 주도하는 씨클에 가입하였고 학습을 통해 5·18항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구술자의 기억에 의하면 1981년 여름부터 문부식을 통해 김현장에 대해 대략 알게 되었고 원주모임 이후 5·18항쟁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5·18항쟁의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 제 생각에 그때부터 ‘아, 이 올, 이 진상을 좀 알려야겠다, 다 아는 데가 없다, 뭔가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가을, 10월부터 됐던 거 같아예. 기억,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아, 유인물을 만들자. 유인물에 광주사태 지금 생각할 때 유인물에 ‘광주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 물러나라’ 이런 거, 저희들이 그때 이제 5·18 거기서 그런 거 적어서 음, 선배, 문 선배, 저 이렇게 한조, 총언이, 원식이 한 조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지금 현 광복동, 뭐, 자갈치시장 그러고 중구 하여튼 그 쪽에 밤에 골목길에 붙이러 다녔습니다.³⁹⁾

구술자 등은 5·18항쟁의 진상을 알리고 독재정권과 미국을 비판하는 선전물을 1981년 10~12월 경에 시내 도처에 부착했다. 이 선전물은 손으로 직접 쓴 것들이었다. 그리고 구술자는 문부식이 그 무렵 부미방사건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어느 날 문부식 선배가 그게 한 10월인가 11월인가 하여튼 그

때 쫓이었는데 인제 저랑 자취방에서 선배가 이 신문에 무슨 스크랩을 하면서 이게 광주 미문화원에 인제 방화사건이 있었다. 광주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는 광주 미문화원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뭐 부었는데 실패를 했는데, 아, 그걸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예.⁴⁰⁾

다음으로 김영애(가톨릭신자, 26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술자는 원주 출신으로 가톨릭 신자였다. 가톨릭 원주교구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박 정권에 비판적이었고 구술자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다. 1980년 5월 5·18항쟁이 일어났을 때 계엄사나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다.

그래 그런 거를 전혀 그때는 그 정부에서 내놓는 매스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믿지를 않았었던 시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뭔가 있다, 라는 얘기는 늘 뭐 심지어는

38)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2. 9.

39) 이미옥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2. 9.

40) 이미옥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2. 9.

옛날에 그 육영수 여사 죽었을 때도 이것도 쇼다, 라는 얘기를 서울에 있었던 정말 그 저희 선후배들 내려 와 갖고 여기 뭔가 있다 그런 얘기도 저희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항상 의심의 눈을 가졌었죠.⁴¹⁾

정부의 발표를 믿지는 않았지만 사태의 진상은 잘 파악할 수 없었고, 진상에 접한 것은 신부나 성당 관계자를 통한 구전이였다. 이후 김현장을 만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최기식(신부, 당시 39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술자는 1980년 당시 천주교 원주교구 사목국장 겸 교육원 원장으로 있었다. 5·18 항쟁이 일어나고 계엄사의 발표를 보도를 통해 들었지만 진상을 알 수 없었다. 진상을 자세히 들었던 것은 광주의 김성룡 신부가 서울로 올라와서 명동성당에서 몇 사람의 신부들을 모아놓고 광주 얘기를 했을 때였다. 광주의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교회 주보에 그런 내용을 썼지만 군의 검열에 걸려 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해 10월에 원주교구의 여러 사람들이 독일에 연수를 갔는데 구술자는 거기서 5·18항쟁의 사진을 보았다. 그 이후 김현장을 만나 다시 광주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현장에게) 뭐 좀 주면서 얘기를 죽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들어보니깐 하나도 뭐 이렇게 하, 뭐 거기서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나한테는 그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애가 얘기하는 게. 실감이 전혀 나지가 않고 ...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별로 내가 이렇게 뭘 감동을 하거나 뭐 분노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다만 개를 감춰줘야겠다. 거기다 이렇게 허용을 하는 그 마음 자세는 뭐이냐 그러면 그 광주에 그 큰 일이 일어나면서도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다, 이제 지금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도 해야지, 뭐 이제 그런 거였죠. 뭐 보상 심리라 그럴까 뭐 그런 것도 되지만 이런 거래도 돼야지. 이런 사람이래도 우리가 해주면 나도 거기 참여하는 거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내면적인 어떤 그런 충동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주 괜히 그런 거는 뭐 망설임이 없이 그냥 받아들였죠.⁴²⁾

여기서 구술자는 두 가지 양가적 감정을 갖는다. 하나는 5·18항쟁의 참혹한 진상을 전해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자신이 그런 사태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한 것이 없다는 도덕적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2) 5·18항쟁과 부미방 사건

이상에서 우리는 부미방 사건 당사자 6인의 구술을 통해 부미방 사건의 주체들이 5·18항쟁을 어떻게 받았들였고 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41)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4.

42) 최기식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4.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부미방 사건 당사자들은 항쟁 당시 5·18항쟁에 대한 정부의 발표도 믿지 않았지만 5·18항쟁의 진상에 조금씩 접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추체험하는 것이 힘들었다. 문부식의 경우,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한 개인적 경험은 생생한데 반해 뉴스로 편집된 5·18항쟁의 실제와는 단절감을 느꼈다.

최인순의 경우도 처음에는 5·18이 어떤 현실감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에 감정이입이 된 것은 나중에 한 전남대생의 고백을 통해서였다. 최기식 신부의 경우도 여러 경로를 통해 5·18항쟁의 소식에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장의 이야기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5·18항쟁의 상황 자체가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의 경험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정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때부터 벌어진 일들은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머리 속에 준비하고 있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고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없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광경을 일일이 묘사해 전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 광주시민이나 타지역 사람들이나 사실로 믿지 않았다.⁴³⁾

많은 사람들이 5·18항쟁의 소식을 접하고 선뜻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워낙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참혹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와 함께 또다른 요인은 별거벗은 물리력이 지배하고 있는 폭압적 상황이 불러오는 공포감과 무력감이다. 사태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좌절감, 패배감 등이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추체험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미방 사건의 주체들이 5·18항쟁을 이해하는 감성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5·18항쟁이 군부정권의 '5·18지우기'로 인해 망각돼 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기억투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물론 5·18의 기억이 망각되고 있었다는 문제는 단지 군부정권의 억압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문부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전두환을 지지했던 것은 그와 같은 일부 집단만이 아니었다. 그 뒤 전두환 정권의 법적 토대가 되었던 '제5공화국 신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말 그대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광주'로부터 불과 1년도 안 지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이한 망각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권력의 억압이 지속되고는 있었다 하더라도 광주항쟁을 유린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그 압도적 지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 나와 동료들의 그날의 행동은 어쩌면 이 '안정기'의 터무니없는 '망각'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

43) , 1999, 『5월의 사회과학』, 96쪽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이었다.⁴⁴⁾

그래서 그들은 5·18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전단지과 현수막 등을 만들어 은밀히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 ‘터무니없는 망각’에 대해 투쟁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광미방 사건을 은폐해 버릴 정도로 강도 높은 군부정권의 ‘5·18 지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충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부미방을 기획한 문부식 등의 인식이었다. 그 결과 부미방은 광미방보다 훨씬 엄청난 사건이 되어 버렸다.

네. 정말 예상하지 못 했었죠. 예, 정말로 신문 한 쪽 구석에 쪼꼬마나케 실렸다 사라지고 우리는 뭐 수배당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끝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상상 밖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지고 여러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된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김현장 씨나 문부식 씨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1,000 프로는 달성을 하지 않았나 (웃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⁴⁵⁾

5. 5·18항쟁과 6월항쟁

1) 6월항쟁 주체들의 5·18항쟁 인식

그러면 6월항쟁의 주체들은 5·18항쟁의 진실에 어떻게 접하고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6월항쟁의 주체라면 다양한 층위의 집단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6월항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학생 12명과 부민협 회원 2명, 야당 국회의원 1명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필자가 진행했던 구술의 대상자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은 1987년 6월항쟁에 참여했던 부산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운동가들이다. 이들은 당시 연령이 19세에서 27세에 걸쳐 있으므로 5·18항쟁 당시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세대이다. 따라서 1980년~1982년에 대학생이었던 집단과는 당연히 5·18항쟁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하고 구술자 개인별로 5·18항쟁의 정보에 접한 경로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먼저 대학생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양윤복(부산대학생, 당시 25세)은 81학번으로 5·18항쟁 당시는 재수를 하고 있었다. 고3때인 1979년 말, 한 선생님이 그에게 검열을 거친 일본 잡지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10·26사건의 이면사를 폭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은 국가가 서적을 검열한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집에서 일본TV를 보는 친구에 의해 구전으로 듣기도 했다. 당시 그는 반공주의, 국가주의에 투철한 학생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1980년 5·18항쟁이 터지자 역시 같은 친구가 일본TV 얘기를 했다.

44) , 앞의 책, 59쪽.

45) 류승렬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3.

그랬는데 이 친구가 또 딱 와가지고 큰일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클 났다. 광주에 있제, 엔에이치케이(NHK)는 다 나갔잖아. 여자가 팬티만 입고 아이나 [안 있나] 고개를 탁 숙이고, 긴 머린데 여자 맞다, 젖에서 피가 축 나고 그라대. “새끼야, 니 그런 말하면 니 죽는다, 임마.” “아이다. 진짜 총 쏘고 난리라니까.” “임마 새끼야. 니 지금 내를 …” … 이 친구가 막 광주 이야기를 전달을 한 거예요. 엔에이치케이(NHK)에서 봤다고. “하, 니, 그, 니 잘못하면 빨갱이 된다.” 딱 했는데 그때 인제 재수 중이었다고 했다 아입니까? 반상회를 안 나가면 옛날엔 벌금 있고 되게 뭐라 하거든. 그 어머니는 일 갔다 나올 거니까 반상회를 내가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의식의 진짜 대 전환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터닝포인트라는 게 인생에 있다면 나 이게 반상회인 거라. 우리 친구를 내가 뭐라 하고 갔잖아에. 친구는 눈으로 봤다 했잖아에. 근데 딱 유인물이 친구가 말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친구는 일주일 전에 이야기 했잖아에. 그러면 이 유인물에 여자가 칼로 뭐 찢을 찢었다는 등 군인이 … 그거 동사무소에서 이런 걸 말을 하는 사람을 신고해라. 간첩이다. 근데 우리 친구가 말한 게 이래 다 나올 수가 없잖아에. 1주일도 훨씬 전에 이야기했는데 딱 순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건 있는 일이다.’ 딱 오는 거예요. 아, 국가가 거짓말한다는 걸. 옳고 그름은 모르잖아에. 재수생이. 이건 국가가 거짓말 한다는 거야. 이건 내 친구가 맞는 거, 뭐가 옳고그름은 아직 구별 안 했어에. 요 때가 딱 내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⁴⁶⁾

양운복은 정부의 반상회 홍보물을 통해 역으로 5·18항쟁에 대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물론 당시 5·18항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잘 몰랐지만 적어도 정부가 홍보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 5·18항쟁과 관련한 사진, 유인물 등의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양운복에게 5·18항쟁은 그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강인(부산대학생, 당시 27세)은 81학번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신문을 읽으면서 사회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부자유한 언론 상황을 비판하면서 북한 방송을 청취하려 애쓰기도 했다. 또 함석헌 선생의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 등 고교 시절부터 체제비판적 의식을 갖게 되었다. 재수생이던 시기에 서면에서 부마항쟁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5·18항쟁은 이강인이 3수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항쟁에 관한 계엄사의 공식 발표는 믿지 않았고 신문사의 아는 선배를 찾아가서 제대로 된 정보를 들으려 했으나 그 선배도 잘 알지 못했다. 결국 여러 곳에서 유언비어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의 핵심은 전두환 군부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광주를 타겟으로 삼아 일으킨 사태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때 많이 느꼈던 거는, 어, 광주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하고 뭐 또 막연하기도 하고 겁도 났고 뭐 이 실행에 옮길만한 혼자서 실행에 옮길만한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러, 하는 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친구도 없고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그냥 울분을 토하며 술 마시는 그

46)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22.

런 게 전부 다였죠.⁴⁷⁾

그는 1981년 부산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한 후 군에 입대했다. 군대생활 중 많은 갈등을 겪고 제대 후 1984년에 복학하여 그때부터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류창영(부산공업대학, 25세)은 83학번으로 고 2학년 때인 1979년 10월, 인근 동아대학교의 부마항쟁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고 3생이던 1980년, 5·18항쟁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언론을 통해 계엄사의 공식 발표를 접한 것 외에는 다른 정보에 접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재수하던 1981년에 고교 써클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을 때 공수부대 현역병인 한 선배가 스스로 자신이 광주항쟁의 진압에 참여했고 자신의 선임병도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라우마 때문에 술을 마시고 무척 괴로워했다고 한다. 1983년도에 부산공업대학에 입학한 그는 9월에 군 입대를 해서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제주도 모슬포에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1985년 휴가를 나와서 우연히 잡지 『신동아』에 실린 5·18항쟁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다. 이 기사를 읽고 그는 비로소 5·18항쟁의 진상에 접하게 되었고 충격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그는 제대 후 1986년 복학을 하면서 곧바로 학생운동을 시작했고 6월항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는 부산공업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다.⁴⁸⁾

이광영(동의대학교, 24세)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79년 부마항쟁을 목격했고, 2학년 때인 1980년에 5·18항쟁 소식을 듣긴 했지만 공식 보도를 접하는 수준이었고 특별히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한 1983년도부터 5·18항쟁의 진실을 전해주는 영상물 등을 접하면서 진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재단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학내 민주화투쟁 등 학생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1985년도에 총학생회 부회장에 당선되었다.⁴⁹⁾

이영남(수산대학교, 27세)은 재수생이던 1979년 부마항쟁에 참여했고 이미 그 이전에 서울대 약대에 다녔던 형을 통해 사회과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이미 고교 시절에 읽으면서 뭔가 사회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1980년 수산대학교에 입학했고 그 해 5월, 5·18항쟁이 일어났는데 계엄사의 발표를 라디오로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 발표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사망자는 몇 명 안 되고 계엄군이 진압하고 있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식이었다. 그 발표를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의심은 했지만 나중에 진상이 밝혀진 정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구술자는 군대를 갔다 제대하고 1985년에 복학하여 군대 가기 전부터 했던 교지 편집기자로 활동하면서 부민협(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 가입한다. 부민협은 1985년에 결성된 공개적 정치운

47)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6/ 11. 12.

48) 류창영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10.

49) 이광영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17.

동단체로서 주로 직장인이 중심이었지만 구술자는 학생으로 참여하여 함께 활동했다.⁵⁰⁾

박태근(부민협 회원, 31세)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군 위탁생으로 대양공고를 다녔다.

군 위탁생이란 군에서 하사관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 3년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학생은 본래 군 복무기간보다 3년을 더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구술자는 고교 졸업 후 입대하여 1981년 4월에 제대했는데 그 직전인 3월에 대구 계명대학교에 입학했다. 1979년의 부마항쟁이나 1980년의 5·18항쟁도 군 생활 중 일어났지만 거의 소식을 접할 수 없었다. 구술자는 계명대학교 재학 중 『전태일 평전』 등을 읽고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학생운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7년쯤 부민협에 참여하였다. 구술자가 5·18항쟁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때는 부민협 활동을 하면서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읽고나서였다. 그 책은 구술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광주사진집 같은 것을 보면서 그의 관심은 5·18항쟁에 급속히 쏠리게 되었다고 기억한다.⁵¹⁾

최영규(동아대학생, 23세)는 고교 1학년 때 5·18항쟁이 일어났지만 거의 아무런 기억이 없다. 공식 보도조차 접해보지 못했다. 다만 그 무렵 구술자는 다니던 성당의 JOC 선배들을 통해 비판적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1983년 동아대학교에 입학한 후 구술자는 성당의 선배들과 연결되어 학습모임을 하게 되었고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5·18항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한 것도 대학 입학 후였다. 유인물이나 자료를 통해 5·18항쟁의 진상에 접한 구술자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그런 한편으로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이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후 구술자는 5·18진상규명투쟁 등과 함께 6월항쟁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⁵²⁾

서토덕(수산대학생, 21세)은 마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마항쟁을 목격했고 2학년 때는 5·18항쟁이 일어났다. 당시는 어려서 그 의미도 몰랐을 뿐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어른들에게만 이야기를 듣고, 누나나 형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주변에서 인제 5·18에 사람이 막 죽고 이래 하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간첩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잘 모르는 학생들을 꼬셔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욕을 엄청 많이, 많이 했습니다. 그 미친놈들이, 응? 그래도 그럴지 이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라고. 다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외에는 뉴스도 안 하고 하니까 정보를 접할 길이 전혀 없었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인 줄 알았죠.⁵³⁾

50)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13.

51) 박태근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28.

52) 최영규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15.

53) 서토덕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5.

당시 구술자 주변의 어른들이 계엄사의 왜곡된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기사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구술자가 5·18항쟁의 진실에 접하게 된 것은 대학 입학 이후였다. 1985년 수산대학교에 진학한 구술자는 그 해 5월, 5·18항쟁에 관한 대자보가 학교에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항쟁의 경과와 사진까지 붙어 있었다. 그 대자보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대자보를 떼려는 학교 측과 학생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뒤이어 해당 학생들을 징계하려는 학교 측의 움직임이 있자 학생들은 중간고사 거부로 맞섰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움직임에 학생들이 동조하여 중간고사는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 구술자는 이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후 학생운동에 투신하여 6월항쟁에도 적극 참여하였다.⁵⁴⁾

임덕기(경성대학교, 20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마항쟁을 목격하고 중학교 1학년 때 5·18 항쟁에 접하게 되었다. 구술자는 당시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일부 폭도가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구술자가 5·18항쟁의 진실에 접하게 된 것은 대학 입학 이후였다. 1학년 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친구들과 함께 읽었고 충격을 받았다. 그 책을 통해 그때까지 구술자가 가지고 있던 5·18항쟁의 이미지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런 진실을 바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선배의 제안으로 친구들과 사회과학 학습을 하게 되었다.

인제 그 팸플릿 그때 인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걸 갖고 와서 친구들과 읽고 있었는데 그 잔혹상이라든지 그 광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가 아니었다. 그래 갖고 하여튼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여름방학 때 그 어떤, 저 선배 측에서 인제 사학, 사회과학 공부를 안 해보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해보게 됐죠. 뭐 12년, 12년의 뭐 어떤 당시에 문교분데, 문교부 교육의 어떤 의식이 진짜 뭐 하루도 안 지나서 싹 전멸이 될 정도로 하여튼 당시에는 좀 쇼킹했었고⁵⁵⁾

이처럼 5·18항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사회과학 공부를 통해 그때까지 받은 제도 교육의 허상을 단번에 허물어뜨릴 정도로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구술자는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6월항쟁에도 앞장 서 싸웠다.

최상영(부산외국어대학교, 당시 24세)의 경우, 고교 1학년 때 부마항쟁, 2학년 때 5·18항쟁이 일어났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기회는 없었다고 한다. 5·18항쟁 당시에 언론에서 폭도가 난동을 부렸다는 식의 보도에 접한 기억이 있지만 그때도 그것을 액면대로 믿지 않았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5·18항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고교 3학년 때 취업준비를 위해 시사상

54)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5.

55) 임덕기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17.

식 공부를 하다가 신문을 읽으면서 5·18항쟁에 대한 보도를 보게 되었을 때였다.

그때까지는 사실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못 두고 있다가, 신문을 보다가, 제가 그때 인자 왜냐면 우리가 인자 상식 공부도 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 뭐 입사시험을 칠려고 하면 그때부터 인자 선생들이 막 신문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거지. 그 전에는 신문을 보지 마라 해서 신문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인자 신문을 뒤져 사실도 공부하고 다 한자세대니까 한자 공부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실을 읽고 하다 보니까 막 물론 왜곡된 내용인데, 어, 이거 무슨 광주에서 군인들하고 시민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총,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도된 거라 나는 기억을 합니다. 아이구야,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좀 더, 지나가지 않고 좀 더 찾아보는 그런 형태는 있었어요. 그래서 언자 내 그때 뭐 진실을 다 알은 건 아니었는데, 아, 이 광주에 큰 사변이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억울하다, 이런 거 보다는 많이 죽었네, 누구의 잘못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⁵⁶⁾

이후 구술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1986년 한국외국어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구술자가 대학에 가려 한 목적은 학생운동을 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의문을 품어왔던 집안의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구술자는 대학 입학과 함께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1986 ~ 1987년도에 5·18항쟁의 진상규명 투쟁에도 참여하고 이후 6월항쟁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서은숙(부산여자대학교, 20세)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때 부마항쟁을 목격했고, 중 1학년때 5·18항쟁이 있었다. 하지만 5·18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고교 2학년때인 1984년이였다. 그때 문우회라는 문학씨클의 학우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언니로부터 들은 5·18항쟁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하지만 너무나 충격적이라 믿어지지 않았다.

예. 2학년 때. 2학년 2학기, 2학년 때는 제가 거의 서클룸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서클룸에 모여 인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언니로부터 들은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죠. ... 예. 되게 충격이었는데 안 믿겼죠. 사실은. 충격이었는데 안 믿는 마음이 더 컸죠.사실은.⁵⁷⁾

그러다가 구술자는 1986년 부산여자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읽고 비로소 5·18항쟁의 진실에 접하게 되었다. 이후 구술자는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6월항쟁에 앞장서고 1988년 부산여대 총학생회장도 역임하였다.

56)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4.

57) 서은숙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0. 20.

박용태(해양대학교, 당시 19세)의 경우, 전남 여수 출신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5·18 항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5·18항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그의 기억에는 없다. 다만 흥미롭게도 그의 기억 속에는 그 무렵에 여수에 떠돌았던 귀신 이야기가 있다.

면담자 : 예, 그때 5.18에 대한 뭐 얘기를 들었거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구술자 :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근데 가물가물한 게, 그, 그 흥흥한 소문이 많이 돌았던 것 같애요. 왜냐면 뭐 광주 옆에 바로 여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흥흥한 소문이 뭐 귀신이 나온다, 뒷산에, 아파트 뒷산에 뭐 귀신 나오고, 무슨 뭐 여기 흰 그 피부를 가진 애가 항아리 속에 들어가 누워 있다. 뭐 이런 식의.

면담자 : 흰 피부를?

구술자 : 그러니까 인제 뭐 혼혈아 이런 거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아, 뭐, 낮, 저녁에 다니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때 기억에. 그냥 지나간 투가 아니라, 그 뭐 선생님인가 누가 모아놓고서 막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던 그 기억이 있는 거 같아요. 그때가 보니까 6학년이 맞네요. 80년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면담자 :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말이죠?

구술자 : 그런 것 같애요.⁵⁸⁾

구술자가 5·18항쟁에 대한 진실에 접하게 된 시기는 1987년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였다. 대학에서 써클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5·18항쟁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보면서 진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구술자는 학생운동과 6월항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민협 회원 2인의 5·18항쟁에 대한 경험을 구술을 통해 살펴보자.

이성조(서울농대, 80년 당시 23세)는 부산 출신이지만 수원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마항쟁은 경험하지 못했고 1980년 5·18항쟁이 났을 때는 부산에 내려와 있었다. 5·18항쟁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믿을 수 없어 선배들을 만나 구전으로 소식을 접했는데 그 이야기 역시 너무 충격적이라 믿을 수 없었다.

면담자 : 그러면 그 5·18항쟁의 소식은 이제 그러니까 주로 소진열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자세히 듣게 됐다. 그죠?

구술자 : 예. 예.

면담자 :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구술자 : 아, 뭐 저는 잘 믿기지 않았습시다.

면담자 : 아,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구술자 : 예. 그 당시에는 잘 믿겨지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어느 게 옳은 건지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나중에 이제 그 성당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58) 귀신 이야기는 5·18항쟁과 같은 공포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밤에 나다니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어른들의 의도적인 창작일 수도 있고, 5·18항쟁에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의 원한이 그런 식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박용태, 차성환 면담, 2014. 11. 20.)

때, 아, 참 그랬지. 말로 들었을 때는 그건 좀 실제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안 믿었습니다.

면담자 : 과연 그렇게 했을까?

구술자 : 예. 예. 안 믿었습니다. 그때. 잘 안 믿기더라고요.

면담자 : 과연 국군이 국민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했을까?

구술자 : 예. 총돌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좀 과장된 전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⁵⁹⁾

구술자는 말로써 전달된 이야기는 믿지 않았지만 비디오테이프 등의 자료를 접했을 때 비로소 믿게 되었다. 이후 구술자는 부민협 활동과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왕신(부민협 회원, 80년 당시 26세)은 군 제대 후 장사를 하면서 부마항쟁을 목격했고 5·18항쟁에 대해서는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신부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고 당감성당에서 5·18항쟁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진실에 접하게 되었다.

구술자 : 그리고 내가 중앙성당인가 어디서 (5·18항쟁 비디오를) 봤다고 그랬죠? 서독 기자가 그게 막 쫓아가면서 막 때리고 죽은 모습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는 정부에서 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이제 그래 되니까 사람이 울분이 날 것 아니에요.

면담자 : 예예.

구술자 : 그러니까 여지껏 내가 정부를 믿었던 게 다 그게 거짓으로 되겠죠?

면담자 : 예예.

구술자 : 순전히 이거는 뭐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게 옳은, 옳은 건 아니다. 저런 거 볼 때는. 그리고 인제 그 MBC가 불타고 할 때는, 아, 그러면은 방송국이 정말로 왜곡을 했고 그런 거를 안 보여주고 뭐 그때 엉뚱한 프로그램 나오고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울분, 울분에 불을 태웠다는 거. 거기서부터 인제 막 그 사회에 인제 투쟁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⁶⁰⁾

이후 구술자는 부민협 활동과 6월항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문정수는 당시 김영삼의 측근 당직자로서 1960년대 후반부터 야당으로서 민주화투쟁에 참여 하였다. 구술자는 5·18당시부터 부마항쟁의 사례에 비추어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

5·18은 아까 부마항쟁 현장에 없었듯이 5·18도 우리가 그 5·18현장에 없었으니까 계엄 확대하고 뭐 이러니까 인제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처음에는 이 정권이 불순세력들이 모여서 뭐 일부 민주화운동세력, 시민들 조금에다 거기 편승한 불순세력들이 이래 전복 시킬라고 했다 뭐 이런 걸로 몰아갔는데 5·18이 군사정권에서 그래 몰아가도 우리도 그, 저 부마항쟁을 다녀봤지만 군중심리란 게 그 저항을 하다보면 아무 일이 없, 그 최루탄이나 무슨 계엄령이 와서 방법이 없잖아요. ... 다수 외지에 있는 국민들은 그 중에 불순세력이 좀 있

59)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18.

60) 이왕신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21.

었나? 이렇게, 그때, 그때의 당국이나 이 어떤 권력 쪽에 애기들을 귀담아 들었는지 몰라도 그 우리가,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말을 안 해도, 예, 그게, 그게 꼭 그럴지는 않았을 거다. 광주시민이, 뭐 이런 걸로 인제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⁶¹⁾

구술자는 계속해서 신군부에 의한 김영삼 총재에 대한 강제은퇴와 가택연금 그리고 1983년 5·18항쟁 3주년을 맞아서 단행했던 단식투쟁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2) 5·18항쟁과 6월항쟁

6월항쟁 참여자로서 구술에 참여했던 대학생 12명과 부민협 회원 2명, 야당 국회의원 1명의 구술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6월항쟁 주체 가운데 대학생들의 경우, 1980년에 대부분 초·중·고교생이었다. 이들 가운데 반 이상이 1980년 당시에는 5·18항쟁에 대한 소식을 아예 접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억이 있는 경우에는 TV에서 계엄사의 발표를 들었거나 어른들이 5·18항쟁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현상은 당시 5·18항쟁에 대한 철저한 언론통제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거론조차 금기시한 사회정치적 상황의 소산이다. 특히 영남의 경우 군부의 지역감정 조장도 더해져서 많은 시민들이 계엄사의 일방적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인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6월항쟁 주체들 가운데 일부는 5·18항쟁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최정운의 지적처럼 5·18항쟁이 워낙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황당하고 참혹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구술자들이 국가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들은 구전으로 전해들은 소식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고 이후 출판물과 영상물 등 매체를 통해서 비로소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셋째, 6월항쟁 주체들 가운데 특히 대학생들은 5·18항쟁의 진실에 접하고 학생운동에 투신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5·18항쟁의 진실과 계엄사 혹은 정부의 공식적 발표 간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진실에 접하는 순간, 군부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민에 대한 학살이라는 사태의 본질 자체가 자연스럽게 불의한 정권에 대한 저항의 동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넷째, 5·18항쟁의 진실에 접하게 된 매체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감성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영상물과 사진으로 나타난다. 출판물로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많은 영향을 주었고 『신동아』 등의 관련 기사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1980년 무렵과 달리 이 시기에는 이미 상당한 종류의 매체가 제작, 배포됨으로써 시공간의 한계 그리고 구전에 의한 전파의 한계를 뛰어넘어 5·18항쟁을

61)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12/ 12. 13.

객관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겠다.

그러나 5·18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이러한 매체들의 배포, 유통은 6월항쟁 직전까지도 아직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군부정권의 언론통제와 탄압으로 인해 그 범위는 야당, 민주화운동단체, 일부 노조,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대중이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1987년 5월 16일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5·18항쟁 7주년을 맞아 '5월, 그 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이름의 사진전을 광주가톨릭센터에서 개최하였다.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일 동안 약 13만명이 관람했다고 한다. 이 사진전은 전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퍼져갔다. 부산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천사협) 사무국장 류승렬(부미방 당사자)은 서울을 오가면서 부산에서 사진전을 열도록 협의하면서 부산교구 정평위와 논의했다. 그 결과 서울이나 다른 일부 지역처럼 성당 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넘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정평위의 박승원 신부는 직접 광주대교구로 가서 사진과 비디오를 은밀히 가져왔다. 6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열린 사진전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이 사진전이 부산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5·18항쟁의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최초의 기회였다. 센터에서는 사진전과 함께 5·18항쟁 비디오 상영을 했다. 사진전을 보기 위해 시민들은 어떤 때는 가톨릭센터에서 메리놀병원에 이르는 긴 줄을 서야 했다. 이 사진전을 관람한 시민들의 수는 6만 내지 8만으로 추산한다.⁶²⁾

이 사진전을 관람한 부산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냥 자갈치 시장 야지매부터 시작해 가 아침부터 그냥 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인제 비디오 테푸. 그걸 이제 그 우에서 상영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기부 사람들, 보안사 사람들, 경찰들 와서 “좀 봐도 되겠냐?”고. 보라 그랬죠. 그래 당신들이 보고선 “야, 이럴 수가 있냐? 이걸 몰랐다.”⁶³⁾

부산의 6월항쟁이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6월항쟁 직전 가톨릭센터에서 시작된 5·18항쟁 사진전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본대로 5·18항쟁은 전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5·18항쟁이 발발할 당시에도 대규모 시위는 할 수 없었지만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투쟁들이 이어졌고, 부미방 사건은 5·18항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6월항쟁에 참여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5·18항쟁을 기억함으로써 더욱 치열하게 투쟁할 수 있었다.

62) , 2013, 「87년 6월항쟁과 가톨릭 사회운동」, 6월민주항쟁 26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63) 박승원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0. 25.

부산의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18항쟁이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추동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5·18항쟁의 기억을 전파하는 수단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1980년, 1981년, 1982년, 1987년이라는 시차를 놓고 보면 1980~1982년의 기간 동안 5·18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주요 수단은 구전이며 매체로서는 뉴욕 타임즈나 뉴스위크 같은 외국잡지 혹은 부산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에서 수신이 가능한 일본TV방송 등이었다. 하지만 1987년이 되면 구전보다는 전파력과 설득력이 강한 비디오테이프, 사진 등의 영상 매체가 보급되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같은 출판물 그리고 『신동아』 같은 대중잡지도 5·18항쟁을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1984년부터 시작된 제한된 자유화(이른바 유화국면)의 영향도 있지만 5·18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예외 없이 당초부터 5·18항쟁에 대한 계엄사와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매우 혼란스럽고 많은 경우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형성된 왜곡된 5·18항쟁 인식이 이후 오랫동안 고착되면서 지역주의, 지역감정과 결합하여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일반 시민들의 5·18항쟁 인식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두식. 2013. 『다른 길이 있다』. 한겨레출판(주).
. 1996. 『시민군 계엄군』. 종로서적.
김은숙. 1988. 『불타는 미국』. 도서출판 아가페.
김정한. 2013. 『1980 대중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김현장. 1994. 『빈첸시오, 살아서 증언하라』. (주)사회평론.
문부식. 2002.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도서출판 삼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3』. 돌베개.
최정운. 1999. 『5월의 사회과학』. 풀빛.
편집부 엮음. 1988. 『항소이유서』. 사상계.

자료집

- 고호석. 2011. 「부림사건」. 민주연구단체협의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이동화. 2013. 「87년 6월항쟁과 가톨릭 사회운동」. 6월민주항쟁 26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차성환. 2013. 「부산지역 5·18항쟁과 그 의의」. 부마항쟁심포지움 자료집.
차성환. 2014. 「5·18항쟁과 부미방 사건」.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구술자료

2008년도 구술 자료

노재열 구술, 차성환 면담, 2008. 8. 7.

2012년도 구술 자료

- 김희욱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0. 22.
이흥록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1. 10.
임수생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2. 8.
조태원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8. 19.
홍점자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1. 16.
박승원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0. 25.
문정현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0. 5.
이광호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1. 28.
남경희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12. 9.
이우주 구술, 차성환 면담, 2012. 8. 19.

2013 구술 자료

- 송세경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8.
- 송병곤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1. 23.
- 박옥영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1. 13.
- 이상경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7.
- 이호철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2. 23.
- 전중근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1. 15.
- 주정민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2.
- 설동일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0. 23.
- 문부식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1. 1/ 12. 1.
- 최인순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3/ 11. 1.
- 류승렬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3.
- 이미옥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12. 9.
- 김영애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4.
- 최기식 구술, 차성환 면담, 2013. 7. 24.

2014년도 구술 자료

- 양윤복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22.
- 이강인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6/ 11. 12.
- 류창영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10.
- 이광영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17.
- 이영남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13.
- 박태근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28.
- 최영규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15.
- 서토덕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5.
- 임덕기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17.
- 최상영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4.
- 서은숙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0. 20.
- 박용태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20.
- 이성조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18.
- 이왈신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1. 21.
- 문정수 구술, 차성환 면담, 2014. 12. 12/ 12. 13.

부마민주항쟁
부산지역 항쟁도와 항쟁일지 작성
보고서

책임연구원: 김하원

실행연구원: 김성선

2015년 12월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마민주항쟁 부산지역 항쟁도와 항쟁일지 작성 보고서

차 례

1. 문제제기	34
2. 기존연구	37
3. 자료 소개 및 분석	42
1). 자료의 소개	42
2). 자료분석- 항쟁일지 정리를 위한 자료의 교차비교	43
2)-1. 10월 15일 월요일	44
2)-2. 10월 16일 화요일	45
2)-3. 10월 17일 수요일	60
2)-4. 10월 18일 목요일	66
4. 자료의 교차비교를 통한 항쟁일지와 항쟁도	67
1). 자료의 교차비교를 통한 항쟁일지	67
1)-1. 10월 15일 월요일	67
1)-2. 10월 16일 화요일	67
1)-3. 10월 17일 수요일	70
1)-4. 10월 18일 목요일	71
2). 자료의 교차비교를 통한 항쟁일지로 그린 항쟁도	72
5. 결론	72

***참고자료

- (그림1) 1979년 10월 18일 부마항쟁 관련 보도 전문
- (그림2) 1979년 아사히신문 부산항쟁 관련보도 전문1
- (그림3) 1979년 아사히신문 부산항쟁 관련보도 전문2
- (4) 10월 16일 부산대학생 가두시위 항쟁도
- (그림 5) 10월 16일 16~17시 시내 시위 항쟁도 중부경찰서 상황실에 보고된 8개 지역의 규모가 큰 시위대
- (그림 6) 10월 16일 시내 시위 항쟁도

1. 문제 제기

1) 정부의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했던 1979년 이후, 관련단체들은 한시도 쉬지않고 항쟁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2013년에는 부마항쟁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14년 10월부터 국무총리 산하에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로 약칭)가 설치되었고, 지금은 이 위원회가 주도하여 사실·피해조사를 위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항쟁 관련 단체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나마 면면히 이어왔던 진상규명 사업을 정부(입법부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진상규명위원회 가동)가 나서서 집행하게 된 것이다. 환영하고 성원을 보낼 일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 기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자가 적어서 지금은 내년 3월30일까지 신고 기간을 다시 연장한 상태이다. 정부의 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진상규명 기간은 앞으로 2년밖에 남아있지 않다.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면 2014년11월부터 2015년10월까지 접수한 사실·피해 신고의 건수는 143건이며, 이 가운데 50건을 심의하여 44건을 인용(認容)하거나 일부 인용했다. 당시 계엄사가 발표한 연행자만 해도 1,563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신고 건수도, 인용 건수도 너무나 적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 건수 또한 단 8건, 5천988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금년도 책정된 보상금 예산 28억 원을 거의 사용하지 못 한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가 이렇게 더디고 파행적으로 수행된 배경에 대하여, 지난 10월 13일 민주주의사회연구소가 기획한 집담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의 내용과 방법’에서 발표자(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및 조사원으로 구성) 및 토론자들은 보상 대상자의 범위 문제와 자기입증책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결론내렸다.

부마항쟁법에 의하면 보상은 당시 30일 이상 구금되었던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에서 10월16일, 마산에서 18일에 발생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10월26일 사망함으로써 일단 상황이 종료되고 대부분의 구속자들은 석방되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구속자들의 구금기간은 1주일 안팎이다.

자기입증책임이란, 정부의 진상규명위원회가 보상 신청자에게 당시 입었던 피해를 본인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36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당시의 사건을 입증할 자료(예를 들어서 진료기록)를 한 개인이 찾아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찾으려 나선다 하더라도 지금 의료기관들은 그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상규명위원회와 정치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조항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를 ‘구금된 자’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아울러 정부는 당시 구금되었던 사

람들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한다. 행정부의 전산망을 이용하면 당시 구금된 사람들의 인적사항 파악도 가능하고,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부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한다.

2) 진상규명의 기본요건

정부의 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는 주로 항쟁 관련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에 중점이 주어져 있다. 이러한 피해 복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조속히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과 명예회복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아니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진상규명이 선결 문제이다. 항쟁 당시의 실상이 밝혀져야 그를 바탕으로 보상도 명예회복도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마민주항쟁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항쟁이 어떻게 발생했고 전개되었는지 그 사실 관계부터 밝혀야 한다. 즉,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진상규명이 있어야 성격 규정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가 가진 진상규명 자료를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정부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군, 행정기관, 정보기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정론적 진상규명

이러한 공적 자료 조사에 의한 진상규명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론적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진영과 학계의 노력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정론적 진상규명’이란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사하고 있는 진상규명이란 단어와 구별하여 쓰고 있다.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진상규명’사업의 실태를 볼 때 진상규명이라는 사전적 의미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내용이므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구별하여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론적’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하여 덧붙였을 따름이다. 민사연이 중점을 두어 진행 중인 정론적 진상규명 작업은 첫째, 통치자들의 정치인식을 재규명하고, 둘째, 항쟁의 전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셋째, 이러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바탕으로 항쟁의 개념을 평가하고, 넷째, 역사 및 사회의 발전 방식을 관·민 함께 힘겨운 항쟁 방식에서 관·민의 대화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통치자들의 정치인식의 검토.

1979년 10월 항쟁 당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산시민들의 정치행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물리적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나 평가도 없이, 그리고 항쟁 조직 관련자나 부산시민들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이 또한 일방적으로 ‘민주항쟁’으로 명명했다. 이러한 자의적인 정부의 명명 행동에

는 정부의 정치인식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입법부가 ‘민주항쟁’이란 명칭으로 법률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 행정부가 ‘민주항쟁’의 실태를 밝히는 진상규명 사업을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법사위, 법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정부의 법제정 관련 및 역사인식 관련 기관들과 항쟁 관련자를 비롯한 부산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명명의 변화에 작용한 정부의 정치인식 및 역사인식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어떤 위원회에서도 과제로 설정한 적이 없다.

둘째, 항쟁의 전개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통한 항쟁일지와 항쟁지도의 작성.

학생 데모의 기획자들이나 항쟁 참가자 및 목격자 시민들은 36년이란 일상 속에 당시의 기억이 퇴색되거나 기억은 재생산되어, 항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하는 사실 관계를 민간 측에서 재구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역사인식이나 정치인식의 변화 실태의 확인과는 무관하게 부마항쟁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항쟁 당시에 행한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시의 정부가 집행한 행위와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국가가 앞장서서 먼저 항쟁 관련자,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 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공문서를 바탕으로 항쟁이 전개된 사실 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당시의 사실 관계의 전모를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정부 측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커녕 진상규명위원회마저 이들 공문서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 듣고 있다. 이러한 공문서들이 공개되어야 항쟁의 전개 전체상을 그릴 수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성과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항쟁 관련자 및 목격자들을 검색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학생운동권에서 학내 데모를 조직하고 집행했던 당시 부산대학교 학생운동권이 중심이 되어 후일 정리한 문건들(당시의 선언문들, “새벽합성”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등)은 일정 부분 민주주의사회연구소가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건들은 데모 조직이라고 하는 현장성을 가장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내 전역에 걸친 시민들의 항쟁 참여의 실태 및 그 전개 양상을 조명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항쟁에 참여하거나 목격한 시민들이 직접 그들의 경험담이나 정서 상태를 서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데모 조직 학생들은 예비 검속, 현장 체포 등으로 인해 항쟁의 전개 전모를 파악할 1차 자료를 사실적으로 재구성할 자료가 불비한 상태이고 그러한 자료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셋째, 정치 인식이 나뉠 단련된 학생, 인텔리 층의 시각에서 시민들의 항쟁 참여 행동을 재단한 측면이 있다.

국가는 늦은 감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어서 공문서를 공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항쟁일지와 항쟁지도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항쟁관련자와 목격자의 기억을 되살려 항쟁일지와 항쟁지도를 보강하여 완성된 형태의 항쟁일지와 항

쟁도를 제작해야 하겠다.

셋째,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

상기 둘째의 항쟁의 전개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측이나 항쟁 관련자나 단체, 그리고 연구자들과 매스컴에 의해 역사적 평가는 있어 왔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확인 미진한 상태에서 내린 평가라서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당시 시민들의 항쟁 참여 양상을 연구한 사례는 충분하지 않다. 부마민주항쟁의 주요 참여자는 누구였는가? 지금까지의 부마민주항쟁사는 학생출신의 시위대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진정 항쟁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노동자와 상인, 점원과 같은 거리의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데모의 역사가 아니라 일상을 영위하는 일반 시민들의 역사인식과 정치인식이 정치하게 반영되지 못한 평가가 가지는 한계가 가장 크겠다. 따라서 관·민의 자료를 교차 확인한 상기 둘째의 작업을 거친 항쟁일지와 항쟁지도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넷째, 일방적인 법제도의 강요와 물리적인 탄압방식에서 관·민의 대화방식으로 전환

위 첫째, 둘째, 셋째의 작업의 성과로써 우리가 얻는 교훈은 국가적 규모의 소모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의 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효과적 경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잘못을 서로 범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시민들이 법제도의 준수에 부하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불편을 표현하는 시민행동권을, 법제도를 제정 집행하는 국가가 인정하고, 양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끊임없는 대화로 해결한다고 하는 시민행동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의 제정과 집행을 국가가 책임진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의 대화 방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의 작업 성과를 정리하여 대 국민 홍보와 학교 교육,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존 연구

지금까지의 부마항쟁 연구는 그 시기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주체,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를 통한 의미 찾기에 주력해 왔다.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축적되었다.

부마항쟁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 홍순권은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⁶⁴⁾에서 시기별 연구경향과 주요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차성환은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에서 부마항쟁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항쟁의 성격과 관련한 쟁점별 사안을 정리하였다.

시기별 연구 성과와 연구경향은 홍순권의 논문을 중심으로, 부마항쟁 연구에 있어

64) 홍순권, 2011,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제27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몇 가지 쟁점과, 부마항쟁의 성격규정에 관한 것은 차성환의 논문⁶⁵⁾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980년대에 생산된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부마사태’로 명명할 수밖에 없었던 1987년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제대로 된 연구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부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가 발행한 「새벽함성」(1984),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등은 당시 민주화운동세력이 서술한 초기의 역사 기록이다. 마산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박영주가 지역 학술잡지인 『마산문화』 제4호(1985)에 마산민주항쟁의 전개과정을 소개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 학술연구로 보여진다. 1985년 5월호 『신동아』에는 이수언이 ‘부마사태의 장막을 벗긴다’는 르포르타주 기사를 실어 역사적 의미 평가와 이의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이어 1987년 발간된 조갑제의 『유고』는 국제신보 기자 신분으로 현장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마항쟁 전후사를 정리해 놓아서 향후 부마항쟁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1989년 발표된 정광민의 「부마항쟁 10년 되새겨보는 역사적 의미」(『사회와 사상』 통권 15호, 1989)는 부마항쟁의 직접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의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부마항쟁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 최초의 학술적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1989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은 부마항쟁 이후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자료집이자, 80년대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종합한 집단적 연구 성과물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부마항쟁의 주체를 민중으로, 그 성격은 민족민주운동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이후의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쳐 많은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고 있다.

1990년대의 들어서 연구 성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사업회가 매년 10월 기념행사와 학술행사를 개최한 것이 부마항쟁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나온 연구 성과는 5·18광주민중동지회가 편찬한 『부마에서 광주까지』(샘물, 1990)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하나의 연관된 사건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부마항쟁을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부산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부마항쟁 연구경향은,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부마항쟁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위치지우냐를 해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94년 부마민주항쟁15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1995년 부마항쟁기념16주년의 토론회는 비록 공식 논문으로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1998년의 『부산민주운동사』의 편찬으로 귀결되었다. 이 책은 부마항쟁을 부산민주운동사의 전

65) , 2009,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49쪽.

체적 흐름 속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0년대 발표된 개인적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유영국⁶⁶⁾ 박철규⁶⁷⁾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는데, 전자는 6월항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후자는 광주항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부마항쟁이, 전후 한국민주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한층 분명하게 하고 구체화 시켰다. 부마항쟁에 대한 종전의 인식도 한 단계 심화되었다. 1998년에 발표된 이은진⁶⁸⁾의 논문은 사회학적 연구대상으로 부마항쟁을 해석하고 박정희시대의 전반적 사회흐름을 평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99년에는 부마민주항쟁20주년기념사업회 주최로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라는 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정근식의 「한국 민주화와 부마항쟁」, 주대환의 「부마항쟁과 시민정신」 등 주목할 만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자료집에 수록되었다. 김재홍⁶⁹⁾의 책은 부마항쟁과 10·26사건의 밀접한 계기적 연관성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로서 연구자들에게 자주 활용되었다.

2000년대 들어 부마항쟁연구는 그 절정에 달했다. 20편 이상의 논문이 학술지와 각종 단행본을 통해 발표되었다. 2003년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으로 집대성되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각도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연구가 열기를 띠게 된 데는 1999년 10월 민주공원(민주항쟁기념관)의 개관에 이어 2000년 7월 산하 단체인 민주주의사회연구소가 창립된 사실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이래 김대중 정부에서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노무현정부하의 국방부 등 각 기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 등 한국현대사를 재정리하려는 일련의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2000년에는 임현진⁷⁰⁾, 정근식⁷¹⁾, 김석준⁷²⁾, 김경호 등의 연구가 나왔는데 무엇보다 부산지역 외부 연구자들에 의해 부마항쟁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2003년에는 부마항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총괄적인 연구 성과로 『부마항쟁연구논총』이 발간되었다. 10편의 논문 중에 김진영은 부마항쟁과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연관성을 밝혔다. 양서조합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이어져 2009년 10월 30일에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조합운동’이라는 주제의 학술심

66) 유영국, 1997, 「6월항쟁과 부마민주항쟁 비교연구」,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67) 박철규, 1999, 「5·18민주항쟁과 부마항쟁」, 한국학술단체협의회(편),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68) 이은진, 1998, 「구조냐 행위주체냐: 10·18 마산민주항쟁의 해석」, 『사회연구』 제11집.

69) 김재홍, 1994,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진술·상』, 서울, 동아일보사.

70) 임현진, 2000, 「민주화의 전주곡으로서 부마항쟁: 유신체제의 지연된 붕괴」,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부마, 광주와 한국과 세계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논문집)

71) 정근식, 2000, 「부마항쟁과 79~80레짐」, 『지역사회학』, 제2호, 한울.

72) 김석준, 2000, 「박정희 시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찰」, 최장집 외, 『한국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 한가람

포지엄이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광주에서 ‘양서협동조합의 지역적 전개’라는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됨에 따라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의미가 전국적 차원에서 재조명되기에 이르렀다. 2003 연구논총 발간 이후에도 부마항쟁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서 연구 성과로는 김원⁷³⁾, 이은진⁷⁴⁾, 차성환⁷⁵⁾의 논문이 있다. 김원의 논문은 부마항쟁에 참여한 도시하층민에 주목하여 부마항쟁에 이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과 항쟁과정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은진은 마산시위가 부산보다 격렬했으면서도 짧은 시간에 시위가 종결된 데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 층을 구분하여, 참여 동기를 증언구술과 재판기록 분석을 통해 다각적으로 밝혀냈다. 차성환의 연구는 항쟁 참가자의 구술과 광범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생애사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부마항쟁 참여노동자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민주주의사회연구소가 2009년 12월 발행한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은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전국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으로 모두 6편 (서중석,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김상봉,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부끄러움에 대하여」, 정태석, 「부마항쟁의 주체세력과 성격」, 한홍구, 「놀라운 붕괴, 거룩한 좌절-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의 비교 연구」, 이은진, 「한국의 민주화와 지역의 역할」, 조정관, 「한국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의 논문과 논문에 대한 토론 요지도 첨부되어 있다.

이 밖에 부마항쟁과 관련해서 개인 연구저작으로는 김하기⁷⁶⁾와 이은진⁷⁷⁾의 저서가 발간되었다. 전자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부마항쟁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것이고, 후자는 1980년 신군부시절, 육군고등군법회의가 만든 『부마사건재판기록』 중 마산항쟁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마산항쟁을 새롭게 분석하고 당시의상황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저작이다. 이은진의 저작은 구술증언에 많이 의존해 왔던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 달리 정부 측의 핵심적인 공식문서를 바탕으로 부마항쟁을 조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부마항쟁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몇 가지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정리하자면 첫째, 부마항쟁의 성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으로,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발전과정과 연속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연속론)과, 1970년

73) 김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74) 이은진, 2006, 「10·18마산민주항쟁의 참여요인」, 『가라문화』 제20집.

75) 차성환, 2009,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76) 김하기, 2004, 『부마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7) 이은진, 2008,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대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민중 혹은 근로대중에 의해 주도된 봉기라고 보는 단절론이 있다. 둘째, 부마항쟁의 주체와 관련하여 주도세력이 학생인가, 혹은 시민 혹은 민중인가, 도시하층민인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부마항쟁의 발생과 관련한 원인에 관한 쟁점으로, 그 원인은 무엇이며, 경제적 원인과 정치적 원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다.

항쟁의 주체와 항쟁의 성격 규정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음 (표1), (표2)는 차성환⁷⁸⁾이 작성한 것이다. 이 표는 항쟁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뚜렷한 근거를 밝힌 연구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표1) 민주항쟁론에 입각한 부마항쟁의 주체와 성격

구분	주체	항쟁성격	근거
10주년 자료집 (1989)	민중	민주항쟁	①참여자 구성: 검거자의 다수가 민중임 ②투쟁 방법: 민중의 혁명성 발현 ③항쟁 성격: 주체는 민중이나 항쟁 목표는 계급적 요구가 아닌 민주화
부산민주 운동사 (1998)	민중적 주체	반독재 민주항쟁	①참여자 구성: 도시빈민 위주의 기층민중+ 중간층 시민 ②투쟁 방법: 자구적 대응 폭력 ③항쟁 성격: 항쟁의 목표와 주체 간의 탈 구. 항쟁 목표가 민중적 계급 요구가 아닌 부르조아적 과제
이은진 (1998)	학생	민주항쟁	①참여자 구성: 참여 학생에 비해 구속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노동자, 상인, 고교생은 시위 동조자
임현진 (2000)	민중	민주항쟁	①참여자 성격: 유신체제 하에서 '능동적 시민'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지배층인 민중으로 파악 ③항쟁 성격: 민중이 계급적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적대적 계급의식 없음
손호철 ⁷⁹⁾ (2003)	민중	민주항쟁	③항쟁 성격: 김영삼 변수와 지역주의적 저항의 성격을 중시. 부마항쟁을 최초의 반신자유주의적 저항으로 이해

(표2) 민중항쟁론, 도시봉기론에 입각한 부마항쟁의 주체와 성격

78) , 2009,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8~34쪽

79) 손호철,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적 배경」,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구분	주체	항쟁성격	근거
박영주 (1985)	민중	민중항쟁	①참여자 구성: 군법회의의 기소자의 구성 등 참여자의 다수가— 민중이며, (반·룸펜) 프롤레타리아트 대중+ 중·소 부르조아지를 포함하는 민중으로 규정 ③항쟁 성격: 민중의 자연발생적 봉기. 70년대 민주화운동과 단절성이 지배적
정광민 (1989)	민중	반독재 민중항쟁	③항쟁 성격: 투쟁 목표는 반독재 민주화.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민중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혼재됨
부산대 총학생회 (1985)	민중	반독재 민중항쟁	①참여자 구성: 검거자의 다수가 민중 ②투쟁 방법: 적대적, 혁명적 방식으로 억압적 현실에 대한 변혁의지 발현 ③항쟁 성격: ①과②를 근거로 규정
주대환 (1999)	민중	민중항쟁	①참여자 구성: 참여자의 다수가 민중 ②항쟁 성격: 민중의 자연발생적 봉기
김원 (2006)	도시 하층민	도시봉기	①참여자 구성: 7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비균질적 사회집단인 도시 하층민 ③항쟁 성격: 도시하층민의 직접적 행동을 통한 정치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도시봉기로서 억압적 국가장치와 부유층이 투쟁 대상. 근대화 과도기에 발생.

※ 박영주, 주대환, 김원은 단절론의 입장이고 나머지는 연속론의 입장이다.

3. 자료 소개 및 분석

1). 자료의 소개

현 시점에서 부마항쟁 당시 상황에 대응하여 생산한 정부의 공문서류(경찰 검찰 기록, 계엄사령부 기록, 부산시청 기록 등)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소와 진상규명작업반은 이해 당사국이 생산하여 보관 중인 외교문서를 입수, 분석하는 것을 실행 가능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미국무성과 일본 외무성이 1970년대에 생산한 자료를 접수해 오고 있다.⁸⁰⁾

80) 일본 외무성이 생산한 자료 중 공개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 가운데 1960년의 기록부터 계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1979년 관련 자료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 자료의 사본의 공개와 제공을 요청하였다. 외무성에서는 자료의 블라인드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신청 자료가 방대하였기 때문에 각개의 파일이 블라인드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파일 단위로 신청자에게 속속 우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협의를 보았다. 2015년 1월 접수된 자료(「緊急事態那人保護/韓國」) 중, 1980년 5월 22일부터 1980년 5월 27일까지의 자료 100여 쪽의 주한일본영사 및 대사의 외무성에의 보고서를 통독하고 있다.

민주주의사회연구소가 조직한 2009년 부마민주항쟁3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2010년 5.18민중항쟁30주년

다음 수집 가능한 자료로서는 관련자(들)의 일기·수기·일지나 항쟁 목격자(들)의 일기·수기·일지 등으로 대표 될 수 있는 사적인 개인기록물이 일차사료가 될 수 있는 데, 이러한 종류의 자료는 지금까지 한 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마항쟁 당시에 관련 기관이 생산한 일차사료로의 입수와 접근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는데다가, 관련자를 비롯한 민간 측이 생산한 문헌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본 작업에 있어서 교차비교를 위한 자료의 선택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자료선택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1979년 항쟁 당시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생산된 작업물을 대상으로 한다.(1989년 이전 생산물)

둘째, 역사적 의미 분석보다는 전개과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한 자료.

셋째, 흥미위주의 서술로 항쟁의 진상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넷째, 연구자들이 논문에 많이 인용하는 자료를 우선한다.

이상의 기준으로 선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부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1984, '올려라! 부마항쟁의 새 깃발을', 「새벽함성」
- ②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5, '10월 부마민중항쟁사',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81)
- ③ 조갑제, 1987, 『유고! : 부마사태에서 10.26정변까지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함성과 총성의 현장』 1·2, 한길사
- ④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10주년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2). 자료 분석 - 항쟁일지 정리를 위한 자료의 교차비교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정리를 한 후 교차비교를 했다.

자료를 늘어놓은 순서는 생산시기 순이다. 이하 '새벽함성'은 '새벽'으로,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는 '거역'으로, '유고'는 '유고'로,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은

강연을 담당해 주었던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에게 미국무성의 부마항쟁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조지 교수는 심포지움의 조직적 요청을 흔쾌히 접수, 미국무성에 부마항쟁관련 자료의 공개를 서류상으로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 언론 기자 팀 서록 선생(수 십 년에 걸쳐 수집한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 백악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언론 활동가)은 2015년 5월 5.18재단에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기증하기로 하였고, 팀 서록 선생이 수집한 백악관 관련 자료들 중에는 부마 관련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팀 서록 본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

81) 이 자료집은 부마항쟁을 '부마민중항쟁'으로 규정하면서 부마민중항쟁을 보는 시각, 배경, 전개과정, 평가 및 전망 등을 다루고 있는데 운동론적 시각에서 「새벽함성」보다 훨씬 상세하고 본격적인 분석을 전개하였다. 이 문건은 이후의 부마항쟁 관련 자료들의 바탕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차성환, 2009,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6쪽)

‘10주년’으로 표기한다.

2)-1. 10월 15일 월요일

시간	내용	출처
9:30	9:30 부산대학교 교정. 1대(공대 이진걸 중심)-본관 311호 강의실부터 상대 앞 벤치, 문창회관, 식당, 휴게실, 운동장 스탠드, 도서관에 「민주선언문」을 뿌림.	거역
	2대(법대를 중심)-본관 강의실, 미리내 계곡 주변 벤치를 돌아다니며 「민주투쟁선언문」 살포.	
	9:30 부산대학교는 본관을 위주로 교내 곳곳에 뿌려진 두 종류의 유인물(「민주선언문」, 「민주투쟁선언문」)로 술렁이기 시작.	10주년
9:40	이진걸은 본관, 남성철은 도서관을 맡아서 선언문 배포 ⁸²⁾	유고
10	이진걸 (공대 3) 에 의해 「민주투쟁선언문」이 도서관, 운동장 등 교내 전역에 살포. 반유신, 반독재 구국투쟁 참여 촉구.	새벽
10:20	도서관 앞 학우들은 모이지 않고 사복경찰들이 깔려 있었음.	거역
	선언문에 적힌 도서관 앞 집결시간인 10시를 넘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음	유고
	이진걸과 남성철이 선언문을 돌리고 반응이 없자 학교를 빠져나감.	10주년
10:30	이진걸 남성철은 시위대 동원에 실패했다고 판단, 구정문을 통해 빠져나감.	거역
10:40	선언문을 받아 권 학생들이 교내 곳곳에서 도서관으로 몰려듦.	10주년
10:45	선언문 권 학생들 도서관에 집결 시작.	거역
11	교련검열을 마친 학생들이 도서관 앞에서 집결자를 기다렸으나, 주동자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자 “오늘은 휴강이다. 내일 10시에 모이자”라며 해산.	새벽
	300 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들어 시위 주도자를 기다림. 정오까지 학생들 해산하고 짙은 여운만이 남음.	거역
	운동장 스탠드에서 학훈단 검열시범을 참관하고 교련수업을 마친 학생들까지 도서관으로 몰려와 도서관 앞 잔디밭과 계단에는 3백 여 명의 학생들로 술렁거림.	보라

14	이진걸, 남성철은 서면에서 황선용을 만나 셋이서 점심을 먹고 헤어짐.	유고
오후	정광민(경제학과 2)을 중심으로 추진된 2차 시위계획은 직·간접으로 1,2대와 관계를 맺으며 진행되고, ‘내일 10시, 다시 도서관 앞’이 학생들에게 다시 전파. 정광민과 전도걸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유인물 500여 장 등사.	거역
	부산대 부근 술집은 유달리 학생들이 많이 붐비고 울분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위기. 내일은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 줌.	유고
19	전도걸, 박준석과 16일의 시위 결행을 다진 정광민은 자신의 집에 도착해 다락방에서 정광민이 미리 써둔 선언문 초안을 놓고 유인물 제작에 들어감.	10주년

2)-2. 10월 16일 화요일

시간	내용	출처
9:30	306호 강의실 경제과 2학년생들 정광민의 주도로 강의실을 박차고 나옴. 경영과 무역과 회계학과 학생들 합류. 「우리의 소원은 자유」를 부르며 상대에서 도서관으로 나아감.	유고
	정광민씨는 상대(앞 벤치에서 만나기로 한 동료 박준석씨와 전도걸씨를 기다렸으나 10시가 가까워 오도록 이들이 나타나지 않음. 혼자서 인문사회관으로 뛰어 올라감. 2층에서 타과의 아는 친구 몇을 만나 40여 장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배포를 부탁한 뒤, 바로 306 호 강의실로 뛰어 들어 감. 강의실에선 경제학과 2학년생 40여 명이 첫째 시간인 화폐금융론 강의가 일찍 끝나 중간고사에 대비, 공부를 하고 있었음. 가방을 열어 뒤쪽에서부터 유인물을 나눠주고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 상기된 얼굴로 열변을 토함.	10주년

82) 이전의 전조로는 1978년 4월 19일 ‘부산대학교자율화 민주실천선언문’ 사건, 1978년 7월3일 ‘반유신페인팅’ 사건, 1979년 9월 17일 ‘부산공전’ 사건 등이 있다. 특히 1978년 4월 19일 부산대학교자율화 민주실천선언문 사건은 학원 바깥 조직과 학원 내 조직의 접촉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안과 밖의 운동이 뚜렷한 연결을 갖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p>“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 유신독재정권에 맞서 우리 모두 피흘려 투쟁합시다!”</p> <p>“나가자!”</p> <p>단 한 명의 주저도 없이. 타과 학생들까지 가세하여 인문사회관 앞에는 순식간에 백여 명의 시위대가 형성. ‘독재타도’의 구호가 터져 나옴.</p> <p>정광민씨는 선언문 뒷장에 ‘자유’라고 검은 사인펜으로 휘갈겨 쓴 피켓을 쳐들고 대열을 선도, 상대를 지나 도서관 쪽으로 나아감.</p> <p>「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가 터져 나옴. ‘통일’을 ‘자유’ ‘민주’로 바꿔 부르며 시위대가 도서관 앞에 이르렀을 때는 200 여명의 학생들이 잔디밭과 벤치에 흠어져 있었음.</p> <p>시위대는 「애국가」, 「선구자」, 「아침이슬」, 「기다리는 마음」, 「교가」 등을 계속해서 부르며 학우들의 동참을 호소. 박기채 총장을 비롯한 전 보직교수들이 몰려와 이들의 해산을 종용. 그러나 사십 여 명으로 시작했던 시위대는 어느새 삼백 여 명으로 불어남.</p> <p>도서관으로 들어가 열람실을 돌아다니며 학우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정광민씨를 두 형사가 덮쳐 멱살을 잡자 몰려간 학생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못매를 가함.</p> <p>사복경찰의 기습에 자극을 받아 순식간에 천 여 명으로 불어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스크럼을 짜고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본관을 향해 달려 나감.</p>	
10	<p>인문사회관에서 상대생들이 시위대를 형성(상대 경제학과 2학년 화폐금융론 시간에 정광민 엄태언이 유인물 배포하며 “드디어 오늘이 왔다! 저 유신 독재 정권에 맞춰 피흘려 투쟁하자!”는 열변을 토했고, 상대 앞에서 대열을 정비한 80여 명의 시위대가 ‘우리의소원은 통일, 민주, 자유’를 부르며 도서관으로 향함. 도서관 앞에 4,5백 여 명의 학생들 운집. 정광민을 잡으려던 사복경찰들과 도서관 3층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형사들 학생들에 밀려 도망.</p> <p>500여 명의 학생들 스크럼을 짜고 ‘유산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뛰기 시작하면서 2000여 명으로 확산, 구호를 외치며 운동장으로 내려감.</p>	거역

	<p>도서관 잔디밭에서 선구자 교가 애국가를 계속 부르며 학생 규합.</p> <p>상대에서 100명이던 학생이 300명쯤으로 불어남.</p> <p>이성희 김성수 형사의 정광민 체포 시도로 학생들 자극, 시위대 1000명으로 불어남.</p> <p>대열 상대쪽으로 뛰기 시작, 신관을 한 바퀴 돌고 스탠드를 가로질러 운동장으로 내려감, 대열 2000명으로 불어남.</p> <p>“유신”, “철폐” 처음으로 구호가 터짐.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신정문으로 진출 시도.</p>	유고
10:15	<p>폐퍼포그 차를 앞세운 진압부대(585명)의 교정 진출. 학생들 대항, 야유 함성이 수업 중이던 학생들 자극.</p>	유고
	<p>눈덩이처럼 불어난 시위대는 곧장 신정문으로 내달아 정면 돌파를 시도. 교문 밖에는 방패와 방석모로 무장한 경찰 진압부대가 삼엄하게 진을 치고 있었음.</p> <p>농구골대를 밀고와 비탈길로 굴러내렸으나 철문은 끄덕도 않음. 교문 너머로 돌맹이가 날고 첫 접전이 시작.</p> <p>잠시 후 핸드마이크를 든 경찰간부가 나타나 해산을 종용하는 듯 뭐라고 이야기를 함.</p> <p>그와 동시에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고 폐퍼포그를 내뿜으면서 전투경찰 진압부대가 물밀듯 교문을 치고 들어옴.</p> <p>돌진해오는 경찰에 밀려 대열은 흩어지면서 운동장과 본관 쪽으로 후퇴.</p> <p>후퇴하면서 투석으로 또 학훈단 사열용 엄호 잡초에 불을 붙여 완강히 저항함.</p> <p>검은 폐퍼포그차와 기동 진압대가 대운동장과 본관 진입도로를 중형무진 해집고 다님. 개스차는 학생들을 쫓아 스탠드 바로 밑에까지 달려옴. 경찰에 대한 학생들의 적대감은 극에 달함. 운동장 주위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학생들과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까지 합류, 경찰이 일단 정문 밖으로 퇴각 후, 다시 대오를 정비한 일단의 학생들이 구정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p> <p>맞붙은 볼록담을 발길로 차서 무너뜨리고 삼백 여 명의 학생들이 교외진출에 성공.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백 명쯤의 기동경찰대와 조우. 빈 음료수 병과 돌맹이를 던지며 접전을 벌인 끝에 주택가 골목 사이로 빠져 온천장 쪽으로 밀고 나감.</p>	10주년

10:30	<p>신정문에서 집전을 벌이던 학생들, 페퍼포그를 앞세운 경찰에 밀려 운동장과 본관으로 후퇴. 농구대, 투석, ROTC 사열용 엄호 잡초에 불을 붙여 대항.</p> <p>다시 도서관 앞에 집결, 대열을 정비하고,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탄압 중단하라’구호 선창에 이어 정광민의 「민주선언문」 낭독.</p> <p>독수리탑을 돌아 다시 신정문으로 향하며, 가두시위 의견이 오감.</p> <p>캠퍼스 전역에서 모인 7천의 대열이 5백 여 진압부대와 신정문에서 결전.</p>	거역
	<p>본관 정문쪽에서 경찰의 최루탄 발사로 본관 2,3층 유리창 박살. 경찰의 캠퍼스 돌격이 많은 학생을 참여자로 만듦.</p> <p>경찰이 운동장으로 철수한 후 다시 700명 남짓 학생들 문창회관 앞 집결. 구정문으로 진출, 공대생들 무더기로 합류. 1000명쯤 되는 학생들 구정문의 블록담 무너뜨리고 학교 밖 진출.</p>	유고
10:50	<p>300명쯤의 학생들 금강공원에서 온천장까지 구호 외치며 시위. 사직동 원예고 까지 진출. 진압부대를 만나 흩어짐(대부분 학교로 걸어 돌아오고, 일부는 사대부고를 통해 나온 데모대와 합류)</p> <p>구정문 바깥에서 경찰 밀어붙이자 나가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도서관 앞으로 모이기 시작.</p>	유고
11	<p>구정문으로 진격한 1진 1천 여 명, 수위실 옆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500여 명이 진출하여 경찰의 최루탄에 돌과 음료수병으로 대항하면서 구정문 사거리에서 집전.</p> <p>2000명(들어 설 자리가 없어 많은 학생들 근처에 흩어져 있음)의 학생들 도서관 앞에 재집결.</p> <p>정광민과 무역과 김창수가 선언문(정광민이 쓴 선언문은 등사가 희미해서, 전날 배포된 이진걸의 것)을 교대로 낭독.</p> <p>정광민의 구호 선창으로 수천명 복창</p> <p>“유신헌법을 철폐하라!”</p> <p>“학원사찰을 중지하라!”</p>	거역 유고

	<p>“구속학생을 석방하라!” “긴급조치 위반자를 석방하라!” “YH와 같은 반윤리적 기업을 엄단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구호 제창 후 데모 목표지점 놓고 토론. 우선 학교를 뚫고 나가기로 함. 신정문 농구골대로 공격 실패. 방향을 바꾸어 사대부고 철문 격파 후 1000명쯤이 빠져 나가 부곡동 산업도로 쪽으로 진출.(온천장 사거리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온천천을 건너 명륜동방향과 저지대 주택가 두 방향으로 흩어짐. 온천장에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학생들은 사직동에서 우연히 만남. 400명의 학생들이 미남로타리 쪽으로 이동. 경찰과 투석전. 다른 한 갈래 데모 대열은 명륜동 사거리에서 동래경찰서를 지나 교대 앞까지 진출. 교대 앞에서 경찰진압으로 흩어져 약속된-“2시 시청 앞 집결”- 시내방향으로 시내버스로 제각각 이동</p>	
	<p>도서관 앞 다시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듦. 정광민씨가 앞에 나서, 「민주선언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선창. 유신헌법 철폐하라! 학원사찰 중지하라 구속학생 석방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구호제창이 끝난 학생들은 다시 대열을 정비 독수리탑을 돌아 신정문으로 향함. 학생들 사이에서 시내진출의 목표지를 놓고 잠시 의견이 오감. 온천장과 부산역, 남포동 등 몇 가지 지점이 거론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함. 캠퍼스 전역에서 모인 학생들 운동장을 돌며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외침. 대열은 4백 미터 트랙을 완전히 메우면서 7천여 명으로 불어남. 운동장을 돌던 시위대열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사대부고 출입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 출입구에 있는 철제 셔터를 밀어서 뜯어내고 학교 안으로 진입한 시위대는 운동기구인 늑목대를 끌어다 담에 걸쳐 놓고 계단으로 삼아 넘기 시작. 산업도로로 진출한 2진 1천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온천장으로 나아감. 2진으로 1천여 명이 진출하자 교내 잔류 시위대를 해산시</p>	<p>10주년</p>

	<p>키려는 경찰의 강공에 밀려 나머지 학생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운동장에 집결, 교내를 한 바퀴 돌아 대오를 수습하고 전열을 가다듬은 학생들은 3진 5백 여 명이 가두진출을 모색, 사대부고 출입문을 돌파, 왼쪽 블록 담을 무너뜨리고 주택가 골목을 지나 부곡동 산업도로에 진입.</p> <p>구정문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일단 가두진출에 성공한 1진 3백 여 명의 학생들은 골목을 따라 식물원, 동래 금강공원 방면으로 나아감.</p> <p>시위대는 사직동 미남로타리까지 진출. 여기서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 일부는 걸어서 학교로 되돌아감. 일부는 온천장 입구에서 2진과 합류.</p> <p>사대부고 담을 넘어 산업도로로 진출한 2진 1천 여 명은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온천장 쪽으로 나아감.</p> <p>시위대가 온천장 네거리 입구에 이르렀을 때 뒤따라 온 기동대 트럭이 갑자기 시위군중 속으로 돌진, 대열이 양쪽으로 갈라지자 차에서 뛰어내린 전경들이 거칠게 곤봉을 휘두르기 시작.</p> <p>흩어진 시위대는 두 갈래로 갈라져 한 갈래는 온천천으로 뛰어내려 명륜동 쪽으로 달아났고 다른 한 갈래는 우측 금성사 방면으로 또 저지대 주택가로 뛰어내려 1진 잔류세력과 합세해 사직동 쪽으로 향함.</p> <p>3진으로 진출한 5백 여 명의 시위대는 1·2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성을 갖추고 있었음.</p> <p>이들은 명륜동, 동래경찰서 앞을 통과해 교육대학 앞까지 무난히 진출.</p> <p>‘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 ‘학원자유’와 같은 구호 반복해서 나옴.</p> <p>차선의 중앙을 시위대가 차지해 약간의 교통체증이 일어났지만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기사나 승객이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거나 박수를 쳤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사기를 북돋워 줌.</p> <p>행진도중 부득이 해산당할 시는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앞에서부터 뒤로 전달. 교대 앞 육교 아래에서 경찰은 삼엄한 저지선을 펴고 닥치는 대로 학생들을 연행. 경찰의 철수를 기다려 학생들은 서둘러 버스를 타고 시청 앞 집결지로 향함.</p> <p>교내에 남아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후 2시 부산역’설이</p>	
--	---	--

	<p>전과.</p> <p>학생들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기 시작.</p> <p>교문 제1방어선이 무너지자 경찰은 서면을 제2방어선으로 잡고 시위대의 시내진입을 막기 위해 안간힘. 시내버스를 세우고 검문을 실시. 시민들의 거센 불평. 시경당국은 시위대가 부산역에 집결한다는 정보에 따라 부산역을 제3 방어선으로 잡아 부산역 광장, 지하도, 버스정류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p>	
오전	<p>상대 경제학과 정광민(경제과 2)화폐금융 시간에 유인물 돌리고, “드디어 오늘이 왔다. 우리 모두 피흘려 투쟁하자”라며 도서관 앞 집결을 호소.</p> <p>잠시 후 70~80명의 학생들이 상대 앞에서 ‘통일의 노래’ 부르며 도서관으로 행진. 도서관 앞 학생들과 합류.</p> <p>정광민 “모든 국민에 대한 정치 탄압 중지하라” “유신정권 물러가라” 구호, 「민주투쟁선언문」 낭독.</p> <p>사복형사들과 학생들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스크럼 형성, 이동 시작.</p> <p>도서관 출발 500명에서 운동장 들어가서는 5,000~7,000여 명으로 불어남.</p> <p>신정문으로 가두진출 시도. 페퍼포그차 교내 진입. R.O.T.C 사열을 위해 쌓아 두었던 엄호용 잡초에 불을 지르며 대항. 본관 쪽으로 향한 학생들은 구정문 쪽으로 가두 진출 시도 하여 수위실 옆의 담벼락 무너뜨림.</p> <p>전경들과 대치. 돌맹이, 맥주병 등 빈병을 던지는 격렬한 싸움 끝에, 저지를 뚫은 500여 명 온천장으로 진출.</p> <p>구정문 돌파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도서관에서 운동장으로 재집결하여 사대부고로 통하는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정문에서 경찰과 대항. 구서동 쪽 사대부고 담장을 무너뜨리고 옆 골목으로 1,000여 명이 가두진출 성공. “유신철폐”, “학원자유” 등을 외치며 산업도로를 따라 온천장으로 진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던 승용차, 고속버스, 택시 속의 많은 시민들 힘찬 박수로 격려. 온천장 입구에서 수십 명의 무장 기동대와 마주쳐 많은 학생들 연행.</p> <p>500여 명 우회하여 온천극장에서 금성사를 따라 사직동 미남로타리까지 진출. 차량 2대 30명 정도의 기동대 대기하고 있었으나, 300여 명의 학생들 근처의 돌로써 전경들을 쫓아내고 거제리로 나아감. 도중에 5대의 버스를 타고 쫓아오는</p>	새벽

	전경들에 의해 또 다시 학생들 연행되면서 2시에 시내 부산역 아니면 남포동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고 해산.	
12	신청문에서 접전을 벌이던 학생들은 효과적인 돌파구를 찾던 중 사대부고로 진입하여 왼쪽 담장을 허물고 가두진출에 나섬. 2진 1천여 명 산업도로로 진출하여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를 외치며 온천장으로 진격. 2진 진출 15~20분 후에 다시 사대부고로 진출을 시도하여, 600~700여 명이 3진을 형성하여, 산업도로 온천장으로 향함. ⁸³⁾ 학교내 시위대-‘2시 부산역 집결’ 전파.	거역
	사대부고 담 봉쇄. 나가지 못한 2000명의 학생들 운동장에서 30분쯤 시위. 이때쯤 구정문을 뚫고 온천장을 거쳐 사직동 원예고등학교까지 진출 시위하던 학생들 일부가 돌아옴. 오후 “2시 부산역 집결” 말이 나뉨.	유고
13	고신대 동아대생들 데모 소식 듣고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음.	새벽
	부산대 학생들 교정을 나서기 시작.	유고
13:30	시청 앞은 버스에서 내린 부산대학교 학생들로 크게 붐빔. 부산대파트 옆 광복동 입구 화단주위에서 즉석 토론회를 열고, 지리적 여건상 시위 집결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림. ‘2시 부영극장 앞’을 최종집결지로 하기로 뜻을 모음.	10주년
14	부영극장 앞 부산대 상대·공대생 10여 명 “유신철폐”외치자 주위에 흩어졌던 학생들 일시에 스크럼 형성	새벽
	200~300명씩 시청, 부영극장, 미화당 등 충무, 남포, 광복동 주요거리에 진출 친 시위대는 오후 2시 부영극장 앞에서 ‘유신철폐!’ 구호를 시작으로 가두시위에 돌입. 학생들의 명백한 반유신 시위를 향해 시민들 명백한 지지 표시.	거역
	부영극장 앞에는 시청 앞에서 이동한 학생들이 속속 도착. 3백 여 명의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어깨를 걸고 연좌시위에 돌입. “독재타도!”, “유신철폐!” 광복동 입구에서 방어선을 치고 있던 기동 경찰대가 서서히 간격을 좁히며 행동을 개시.	10주년

	<p>부영극장 앞 시위를 기점으로 경찰과 시위대 간에는 쫓고 쫓기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끈질기게 계속 됨.</p> <p>적계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의 시위대가 놀라운 자생적 결집력을 보이며 미로같이 형성된 남포동, 광복동, 창선동 국제시장의 골목 골목길을 휩쓸고 다님.</p> <p>경찰이 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싶으면 어느새 또 다른 시위대가 예기치 않은 골목에서 쏟아져 나옴. 경찰의 분석대로 완벽한 ‘도시 게릴라전’식 수법을 구사.</p> <p>시위대가 지나는 골목 골목에서 또 다방이나 고층건물의 사무실에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흔들어 환호하거나 우렁찬 박수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고 경찰들을 향해선 야유와 욕설을 퍼부음.</p> <p>시위의 양상은 단순한 학생데모가 아니라 학생과 시민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민중항쟁’의 성격을 띠어감.</p>	
14:10	<p>중부경찰서 상황실.“부산데파트 앞에 참새 200마리, 부영극장 앞에 300마리, 국제시장에 300마리, 춘해병원 앞에 200마리…….”</p>	유고
15	<p>동아대에서 교련을 마친 수많은 학생들 손에 태극기 들고 시위에 참가.</p>	새벽
	<p>미화당 백화점 앞길, 1천의 대규모 시위대, ‘유신철폐’, ‘언론자유’를 외치며 시청으로 진진. 경찰의 최루탄과 방망이에 후퇴한 시위대는 미문화원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수십 개의 시위대로 분산하여 경찰에 대항.</p> <p>동아데파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시위대는 3시경 시위대를 증강시키고 국제시장 안으로 진입. 시위대 앞에 태극기가 등장하고, 학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시민들의 호응 속에 대대적인 가두시위 전개.</p>	거역
	<p>고신대와 동아대생들도 시내로 나오기 시작. 광복동 일대에 몰린 수천 명의 학생들과 수만 명의 시민들, 조바심과 기대감으로 누군가 나서 주기를 기다림.</p>	유고
	<p>광복동 미화당 백화점 앞에는 최소한 3천 명 이상의 시위대가 형성.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아스팔트에 주저앉은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레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p>	10주년

	<p>르기 시작. 양 옆에서 울타리를 치고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한 무더기의 종이 태극기가 시위대의 머리위에 뿌려짐. 이것은 삼시간에 전달되어 연좌한 학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선구자」, 「우리의 소원은……………」, 「애국가」 등을 차례로 부름. 4백 미터에 이르는 4차선 도로가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임.</p> <p>시청 앞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경찰병력이 페퍼포그를 내뿜으며 전진. 학생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노래를 계속 이어 나감. 시위대의 머리 위에는 최루탄의 파열음과 곤봉소리가 낭자으나, 시위는 지칠 줄 모르고, 학생들의 사기는 높아갔고 경찰의 전의는 땅에 떨어짐</p>	
15:30	<p>‘독재타도’ 구호가 처음 나왔고, 서울외대생 황성권이 대열을 지휘하여 시위대 시청 앞으로 나아감.</p>	새벽
	<p>새부산 예식장 앞 거리 ‘독재타도’ 함성으로 가득 참. 「민주투쟁선언문」 200 여장 뿌림. 지칠 줄 모르는 시위대와 열렬히 호응하는 시민들, 그들은 진압하는 경찰의 머리위로 재떨이 화분 연탄재 병 등을 쏟아 붓고, 쫓기는 학생들을 셔터를 내려서 적극 숨겨주는 등 경찰의 활동을 방해하고 야유를 보냄.</p>	거역
	<p>‘유신철폐’, ‘언론자유’에 이어 ‘독재타도’ 구호가 새부산예식장 앞 시위대에서 등장</p>	유고
16	<p>미화당백화점 앞 학생들 10명이 “가자!”라며 국제시장 쪽으로 뛰기 시작. 학생들의 “유신철폐”구호. “잘한다!”는 시민들의 격려의 함성.</p> <p>5분 후 보수동파출소 앞 100명쯤의 학생들도 흑교파출소 쪽으로 뛰기 시작. 10분 뒤 동아데파트 앞에서 네 줄의 대열 국제시장 쪽으로 몰려감. 15분 뒤 창선파출소 앞 2000명의 학생들 스크림을 짜고 미문화원 쪽으로 질주.</p>	유고
16~17	<p>16~17 당시 중부서 상황실에 보고 된 큰 데모 그룹 8개.</p> <p>① 4:00 용두산 공원; 립펜(도시빈민)으로 보이는 청년이 2홉들이 초산병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음.</p> <p>② 4:05 제1 대청 파출소 앞 300명</p> <p>③ 4:20 구 시민관 자리에서 중앙동사무소로 시위가 진행되어 용두산으로 가려다 밀려남. 다시 500명이 스크림을 짜고 부산우체국으로 행진.</p>	새벽

	<p>④ 4:25 우체국에서 제 1대청 파출소 쪽으로 진행.</p> <p>⑤ 4:30 창선동 국민은행 앞에서 50명이 집결.</p> <p>⑥ 4:35 구 남포극장 앞에서 300명 집결</p> <p>⑦ 4:50 동아아케이드 앞에서 200명 유신철폐 구호를 외치며 시위.</p> <p>⑧ 5:05 부산우체국 앞 100명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시위.</p>	
	<p>16~17 당시 중부경찰서 상황실에 보고된 8개 지역의 규모가 큰 시위대.</p> <p>4:00 용두산 공원지역</p> <p>4:05 제 1대청파출소 앞</p> <p>4:20 구 시민관에서 중앙동사무소, 용두산 방향, 부산우체국, 제1대청파출소 방면으로 시위한 시위대</p> <p>4:30 창선동 국민은행 앞</p> <p>4:35 부영극장 앞</p> <p>4:50 동아데파트 앞</p> <p>5:05 부산우체국 앞</p>	거역
	<p>16-17 중부경찰서 상황일지에 기록된 내용.</p> <p>[4:00] 용두산공원에 학생들과 섞여 불량배로 보이는 청소년 4명이 2홉짜리 초산병을 들고 서성대고 있음</p> <p>[4:05] 제1대청파출소 앞에서 300명, 부산우체국 앞에서 100명이 데모.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름. 동아데파트 앞에서도 시민 응원 속에 데모.</p> <p>[4:20] 옛 시민관 자리에서 중앙동사무소 쪽으로 데모대 진행. 그 곳에서 용두산 공원으로 오르려다가 밀려남. 다시 사무소 앞에 집결. 500명이 어깨동무하여 부산우체국 쪽으로 행진</p> <p>[4:25] 부산우체국에서 제1대청파출소 쪽으로 데모. 그 가운데 300명은 용두산공원으로.</p> <p>[4:30] 창선동 국민은행 앞에 50명 집결중.</p> <p>[4:35] 옛 남포극장 앞에서 300명 모임.</p> <p>[4:50] 동아아케이드 앞에서 200명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며 시위.</p> <p>[5:00] 서구 동대신동 쪽에서 동아대생들이 5-10명씩 흩어져 학교 파출소 앞을 지나 시내쪽으로 가고 있음.</p>	유고

17	하기식 애국가가 울려 퍼짐. 학생과 시민들 애국가 합창. 이후 시위 양상이 더욱 격렬해지기 시작. 시내로 인파 몰리기 시작.	거역
	데모 열기 잠시 소강	유고
	새부산예식장 뒤쪽 국제시장 골목엔 2만 이상의 학생, 시민들이 입주의 여지없이 들어 참. 어느 고층 상가아파트에서 오색 색종이 조각들이 비 오듯 머리위로 쏟아져 내려옴.	10주년
17:40	부영극장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언론기관 표시 차에 투석했는데 이는 관제언론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음. 미화당 앞길 경찰 최루탄 발사로 대열이 흩어짐. 50~200명의 소규모 수십 개의 시위대로 분산. 국제시장, 대청동, 보수동 일대에서 계속적인 시위. 국제시장 안에서 시위대와 경찰 정면으로 싸움 후 다시 해산, 경찰의 뒤에서 재집결하여 진압경찰 혼비백산.	새벽
	부영극장 앞 언론의 취재차량이 시위대의 투석에 밀려남.(관제언론이 최초의 공격 대상으로 등장) 수십 개의 시위대 국제시장, 대청동, 충무동, 신창동, 광복동 일대를 휩쓸. 시위대에 가담하는 시민들 눈에 띄게 늘어나며 즐기찬 접전.	거역
	어둑해질 무렵 부영극장 앞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짐. 부영극장을 시작으로 남포동으로 광복동으로 퍼져나감. 이어 부산대학교 교가가 불려 짐. 데모대는 새로운 활력으로 거리로 다시 뛰어 나감.	유고
18	거세었던 시위가 소강상태에 빠짐. 학생과 경찰 모두 지침. 더 이상의 시위는 없을 것 같아 많은 수의 학생 들이 이날의 쾌거에 ‘축배’를 들기 위해 삼삼오오 술집을 찾거나 귀가를 서두름. 경찰도 소수의 병력을 남겨 둔 채 철수. 부영극장을 주변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 이 때 30 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들이 음료수를 상자 째 들고 와서 일일이 학생들에게 나눠 주는 모습이 보임.	10주년

<p>날이 어두워짐</p>	<p>퇴근길의 시민들이 주위를 둘러싸서 앞에는 학생들의 스ك림, 뒤에는 합세한 시민들 이동, 시내일원은 시위대로 가득 참.</p> <p>경찰은 수직열세로 시위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간선도로와 남포동 창선동 광복동을 둘러싼 입구만을 경계하고 상가철시 종용. 그러나 응하지 않고, 셔터를 내려 학생들 피신을 도움.</p> <p>문방구에서는 태극기를, 노점상은 김밥 음료수 과일 등을 나눠줌.</p> <p>시민들이 가세한 시위대는 경찰이 나타나면 해산하고, 경찰이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의 애국가 선창으로 순식간에 시위대 형성.</p>	<p>새벽</p>
<p>어둠이 깊어짐</p>	<p>부영극장 앞 육교를 중심으로 4차선 도로와 일대에서 3만~5만 명의 시민들 집결. ‘독재타도’, ‘언론자유’, ‘유신철폐’, ‘김영삼 총재 제명규탄’ 등의 구호.</p> <p>경찰순찰차와 소형경찰트럭을 전복 후 방화.</p>	<p>새벽</p>
<p>16일 야간시위의 시작</p>	<p>부영극장 앞에 앉아 있던 서너 명의 학생들이 일어나더니 애국가와 부산대학교 교가를 계속해서 부르고, 모이자! 모이자! 를 복창. 이것을 신호로 눈 깜짝할 사이에 골목 곳곳에 앉아 있던 학생들이 극장 앞으로 달려와선 대열을 갖추어 앉기 시작.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 연출.</p> <p>이들은 곧바로 시청앞에서 충무로, 토성동으로 연결되는 중앙로를 향해 스ك림을 짜고 나아감.</p> <p>어둠이 깊어갈수록 시위의 양상은 점차 격렬해짐. 주간의 소극적 방어위주의 시위에서 적극적 공격위주의 시위 형태로 바뀜.</p> <p>6차선 대로가 시위인파로 넘침. 시위대는 시청 앞과 충무동 입구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름. 3~5만 인파의 장엄한 행렬.</p> <p>시위대 구성은 넥타이를 맨 퇴근길의 회사원, 노동자, 상인, 업소의 종업원, 재수생과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다양.</p> <p>독재타도! 유신철폐! 언론자유! 민중의 합성이 향도의 어둠을 가름.</p>	<p>10주년</p>
<p>19</p>	<p>5만 여 명에 이르는 인파가 시청 앞에서 충무동에 이르는 4차선 거리를 꽉 메움. ‘독재타도’, ‘유신철폐’, ‘언론자유’, ‘김영</p>	<p>거역</p>

	<p>삼 총재 제명을 철회하라'구호가 퍼짐. "5만의 대회전"은 이후 상황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19시 이후로는 게릴라전 양상으로 전개.</p> <p>경찰은 공세의 기선을 잡지 못하자 신경질적이고 가혹한 폭력행사. 그래도 진압에 실패하자, 남포동, 창선동, 광복동, 충무동 입구를 차단하고 항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씀.</p> <p>경찰과의 치열한 접전을 거듭하면서 투쟁의 양상이 구체적 목표물을 향한 항쟁형으로 바뀜⁸⁴⁾</p> <p>500여 명에 의해 남포파출소 파괴</p>	
	<p>500명 가량의 군중 남포파출소 습격 후 남포동 골목으로 후퇴. 교통체증으로 도로에 갇힌 기동순찰차(부산 1가 1163호 포니)를 공격하여 불길에 휩싸임. 작전차(부산 7가 1335호)도 공격 불길에 휩싸임.</p>	유고
20:40	<p>남포동 지하도 부근에 있던 5백 여 명의 시위군중이 벽돌과 돌맹이로 남포파출소를 습격, 파괴.</p> <p>시위대가 남포동 골목으로 일단 후퇴한 뒤 백 여 명의 경찰 병력이 기동순찰차와 작전차, 승용차를 앞세우고 지하도 쪽으로 간선도로를 따라 진입. 시위대의 집중 가격으로 경찰은 차를 버리고 달아남. 시위대는 각목으로 포니 승용차의 유리창을 박살낸 뒤, 차를 뒤집어엎고 누군가가 성냥불을 당기자 '평'하는 폭음과 함께 순찰차는 화염에 휩싸임.</p> <p>뒤따라오던 작전차도 시위대의 습격을 받고 불길에 휩싸임. 밤이 깊어감에 따라 경찰의 진압 작전은 더욱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됨. 단지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포동, 창선동, 광복동, 충무동 입구만을 차단하려고 안간힘.</p>	10주년
20:50~21	<p>부산진경찰서 진압대를 투석, 병으로 공격하여 패퇴시키고, 노획한 순찰차와 작전차에 방화.</p>	거역
	<p>경찰은 통금시간을 연장하여 10시 통금 발표. 부평파출소 박살.</p>	거역
22	<p>200명 가량의 시위군중에 의해 부평파출소 박살.</p>	유고
	<p>광복동 골목 시위 군중 속에서 김영삼! 김영삼!의 연호가 터져 나옴. 그러나 여기서 왜 김영삼이가 나오느냐. 우리가 김영삼이를 위해 데모하느냐는 따가운 반론도 즉석에서 제기.</p>	10주년

22:10	부평파출소 시위군중에 의해 박살	새벽
22:30	보수파출소 군중들이 파괴	새벽
	보수파출소 공격	거역
	보수파출소 습격	유고
22:50	중앙파출소 파괴 ⁸⁵⁾	새벽
	중앙파출소 부서짐. 이외에도 각 방면으로 진출한 항쟁 대열에 의해 파출소가 연쇄적으로 박살. 한 시위대가 부수고 간 후 다른 시위대가 남은 것을 파괴. ⁸⁶⁾	거역
	제1대청·흑교·중앙파출소 습격, 충무 파출소 습격	유고
23:40	중부서 앞의 300여 군중 영주동쪽으로 흩어져 감.	유고
22~24	부평파출소, 보수파출소, 제1대청, 흑교, 중앙파출소가 각각 시위대의 기습을 받고 파괴. 시위는 16일 자정을 넘어 새벽 1시까지 계속. ⁸⁷⁾	10주년
24	부영극장과 동아아케이드 앞의 군중도 스스로 해산 ⁸⁸⁾	유고

83)

- 1 -구정문 사거리에서 진진과 후퇴를 되풀이하다가 일부는 신정문으로 합류하고 약 500명 정도가 구정문 우측 골목을 통해 식물원, 온천장 방면으로 향함. 2진 3진에 비해 비조직적으로 진출한 1진은 온천장에서 2진과 합류.
- 2진-산업도로에서 온천장으로 진격하는 도중 교통차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민들의 열렬한 격려와 지지를 받음. 온천장 입구에서 무장기동대와 부딪침. 많은 학생들 구타와 연행. 우측 금성사와 명륜동 방면으로 갈래를 지으며 나아감. 금성사 방면으로 진출한 500여 명이 1진과 합류하여 사직동 미남로타리 방면으로 진진.
- 1진+2진-미남로타리에서 무장기동대를 격퇴하고 사직동, 거제리로 향함. 거제리 군부대 앞까지 진출한 시위대 기동대와 접전으로 수세에 몰림. '2시 부산역 집결'을 전파하며 해산하고 시내로 진출 시작.
- 3진-온천장 입구에서 일진을 벌인 2진 중, 학교로 되돌아오거나, 개천을 건너 명륜동 방면으로 빠진 학생들을 흡수하면서 명륜동 방면으로 치고 나가 동래경찰서를 지나서 교대 앞까지 진출. 700명 이상의 시위대, 교대 앞에서 무장기동대의 방어선에 봉착하여 접전. 많은 수의 학생이 부상 당하고 진격로가 막히자. '2시 시청 앞 집결'전파. '시청앞'을 외치며 해산.

84) 공격목표가 결여된 비폭력적 저항을 “시위형”으로, 구체적 공격목표물이 등장하는 폭력적 저항을 “항쟁형”으로 일컫는다. 민중항쟁으로 전이 과정에서 “시위형” 투쟁은 항쟁형의 전단계로서 시간대 양상의 추적에서 드러난다. 10월 16일의 경우, 시위형(2시~5시), 항쟁형으로의 양상(5시~7시), 항쟁형(7시 이후)

85) 16일 사건에 대한 기관 쪽의 평가

- ①정보기관: 16일밤-배후조직의 사주에 의한 도시계렬라전법으로 이해
 - ②중앙정보부: 시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원에게 시민군중과 함께 데모하라고 지시. 장기집권에 대한 불안, 조세저항으로 원인을 분석.
 - ③동래경찰서 보고서:
- *학교의 비협조를 비난, 학생지도교수진 전면 개편, 인사조치 요구

2)-3. 10월 17일 수요일

시간	내용	출처
8:30	중부경찰서로 시민제보 “지금 보수동 개다리 근방에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현장 확인 나감. 조용함.	유고
9	부산대 ‘임시휴교’ 공고. 경찰 기동대 완전무장하여 신·구정문에 배치. 학생들 구정문에 1,000여 명 모이기 시작. 전경들에 야유하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 외침.	새벽
	부산대 휴업령으로 구정문 앞에 1,000명의 학생들 모임. 총장 귀가 중용.	유고
10:30	금정국교에서 식물원 쪽으로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천천히 걸어감. 식물원 입구에서 기동대에 급습당하여 구타당하고, 50여 명의 학생들 골목에 몰리자 사복형사들과 격투 후 몇몇 연행.	새벽
	구정문을 중심으로 1000여 명의 학생들 집결하여 대열을 지은 후 금정국교, 식물원 방면으로 진출. 식물원 입구에서 기동대와 격전 후 분산한 학생들 시내진출에 나섬. ⁸⁹⁾	거역
	부산대 학생들 일단 귀가하는 듯하다가 200여명이 온천장	유고

* 성의 없는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
 *학생 상담지도관실 확대, 개편하여 단과대학마다 지도관 1명씩 배치를 요구
 *학원 정보 사찰을 더 잘하려면 유급침자를 더 많이 투입해야한다고 주장
 부산시 당국: 성격 파악을 위해 직원을 시위대에 투입

86) 16일 시위의 특징

- ① 주진격로-영선고개 방면, 부산우체국 방면, 동대신동 방면.
- ② 연행자와 부상자 수-학생 282명 포함해서 400여 명이 연행되고, 600여 명의 시민이 부상을 당함.(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어린 우유배달 소년까지 연행)
- ③ 익일(17일)아침 일본 언론의 보도 - “부산 시위가 민중봉기의 성격을 띠고 있음이 17일 아침 분명해졌다. 부산진 경찰서에 연행된 31명 중 학생은 10명도 안 되었다.”며 16일 부산 항쟁이 민중봉기 성격이 있음을 보도.
- ④ 17일 01시까지 전개된 항쟁으로 언론기관 1, 파출소 11개가 파괴.

87)16일 시위 부상·중상·경상자 수 부산시 집계

부상자 110명- 경찰관이 95 명 학생5 명 일반시민 10 명
 중상 18명, 경상자 92명. 신고 기피를 감안한다면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의 피해는 경찰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임.

88)16일 시위의 특징

부산일보, 부산MBC라디오 방송국 데모대의 돌팔매질로 유리창이 부서지는 피해 입음. 파출소 열한 곳이 습격 당함.

	삼거리 쪽으로 밀고 나감. 진압부대에 의해 진압.	
	1천 여 명의 학생들 구정문 쪽으로 집결하기 시작. 유신 철폐, 학원자유, 학원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금정초등학교, 식물원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 대열은 식물원 입구 네거리에서 기동대의 급습. 30 여 명의 학생들 경찰에 연행. 분산한 학생들은 다시 시내 진출에 나섬. 동아대학교에선 교련수업을 거부한 법대생들을 중심으로 교내시위를 벌이고 시내로 진출.	10주년
11:30	동아대, 본관 계단 밑 잔디밭에 학생들 모이기 시작.	유고
오전	동아대 법대 학생들이 교련수업을 중단하고 옹성거리며 모여 있다가 교수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동장을 돌자, 기동대 3개 소대가 폐퍼포그를 쏘기 시작. 분산이후 잔디밭에 집결하여 ‘애국가’‘봉선화’‘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름.	새벽
	동아대 교련 수업을 중단한 법대생들을 중심으로 교내에서 시위를 벌임. 운동장을 돌던 시위대는 기동대의 폐퍼포그에 맞서 대항하면서 잔디밭에 집결, ‘애국가’, ‘통일의 노래’, ‘봉선화’ 등 노래를 부름. 17일 항쟁에 적극 가담.	거역
12	동아대, 시위 학생들 500명으로 늘어남	유고
	남포동, 광복동의 다방과 술집은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나온 교수들로 북새통.	10주년
13	동아대, 5교시 사이렌이 울리자 흩어짐. 정법대 2학년 150명 5~6교시 교련수업 거부, 운동장으로 향함. 정외과 2학년 생들 합세. 200명의 학생들 운동장 돌기 시작. 교내 대기중이던 기동대 3개 소대 폐퍼포그와 사과탄을 던지며 쳐올라옴. 주변에 있던 2000명의 학생들 흩어짐.	유고
13:05	부산시경 정보과 오후 두 시 부영극장 앞에 학생들 집결 정보를 입수 중부서 통보. 14~15사이 29명의 부산대 학생들 부영극장 앞에서 붙들려옴.	유고
14	16일 데모에 적극적이었던 고신대 학생들 광복동으로 모여듬 (정오쯤 하나둘씩 학교를 나서기 시작)	유고
14~15	아침부터 부영극장 앞에 전경차가 배치되어 학생들 연행하여 이 무렵, 29명이 체포.	새벽
14~16	동아대, 다시 잔디밭에 모인 학생들 「애국가」 「봉선화」	유고

	「통일의노래」 부름. 교내시위에선 구호 등장하지 않음. 학교 측 학생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하자, “저녁 6시에 남포동에서 모인다!”는 소문으로 데모시간 약속.	
15	정오부터 시내 다방, 술집, 극장 등에 진을 치기 시작한 학생들, 국제시장, 부영극장으로 오후 3시쯤 집결 시작.	거역
15:45	옛 시민관 자리 꽃밭에 80명의 학생들 발견. 경찰 긴장.	유고
16:20	국제신문 앞 버스정류소 동아대 학생들 무더기 하차. 광복동으로 밀려감. 뚜렷한 군중의 흐름이 나타남. 국제신문 정류소, 남포동 정류소, 대청로 정류소에서 학생들의 물결 광복동과 국제시장으로 흘러 감.	유고
18	광복동 일원 팽팽한 긴장과 침묵.	유고
	부영극장 앞 육교 주위에는 운집한 군중들이 하기식 애국가를 부동자세로 경청. 이윽고 애국가 방송이 끝나자 군중들 속에서 육성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이를 신호로 몇 갈래의 시위대가 형성. 남포동, 자갈치시장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며 시위를 벌임.	10주년
18:30	구 남포극장 앞에 모인 400여 명이 야! 신호로 모였다가 두 갈래로 나뉘어 애국가를 부르며 국제시장 부영극장으로 시위대 형성.	새벽
	남포동에 모인 학생들 ‘모여라!’는 신호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시위대 형성. ‘독재타도’, ‘유신철폐’ 외치며 두 갈래로 나뉘어 국제시장과 충무동 방향으로 진격. 시내 곳곳에 시위대열이 형성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맹렬한 접전. 200~300명 규모의 시위대는 대학생, 일반인, 청년,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구성. 무수한 갈래의 시위대는 중구, 동구, 서구 지역의 거의 모든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기관 공략. 충무동 방향으로 진출한 시위대는 시청 방향으로 전진, 경찰과 대격전을 벌임.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부산역과 운동장 방향으로 진출.	거역
	구 남포극장 앞 400명의 군중 “야!”하는 함성을 신호로 광복동과 충무동로터리 두 갈래로 갈라짐. 이것을 신호로 연쇄적으로 데모가 터짐. 광복동에 서성이던 학생 300명쯤은 국제시장을 지나 부평	유고

	<p>과출소 쪽으로 뿔. 충무동 로터리로 가다가 경찰에 쫓긴 학생들은 국제시장과 부영극장 쪽으로 흩어짐. 부영극장 앞, 국제시장 밀가루골목과 부평과출소 주변 군중들 애국가 제창.</p>	
	<p>남포동 4백 여 명이 “모여라!” 는 신호와 함께 국제시장 쪽과 충무동 쪽으로 나뉘어 독재타도! 유신철폐! 를 외치며 행진을 개시.</p> <p>곳곳에서 16 일의 항쟁과 같은 상황이 연출. 시위대를 뒤쫓는 진압부대의 머리 위로 연탄재와 화분, 빈병 등이 떨어짐.</p> <p>충무동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대는 시청방면으로 전진, 경찰과 일전을 치른 뒤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부산역 방면과 운동장 방면으로 진출.</p> <p>운동장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대 충무과출소 박살, 서부경찰서, 동대신과출소 등의 유리창을 파괴.</p> <p>부산역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대 초량 1과출소를 습격, 부산진역 방면으로 진출. 1천 여 명으로 증강된 시위대가 동부경찰서에서 경찰과 접전.</p>	10주년
19:20	<p>보수동과출소 앞에서 100명쯤의 젊은이들 각목을 휘두르며 대청 1과출소 쪽으로 달려가다 경찰의 공격으로 15명 붙들림.</p>	유고
19:25	<p>국제시장 포위망을 뚫고 나온 원정 데모대, 충무과출소 파괴90)</p>	새벽
	<p>운동장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대가 충무과출소를 박살내고, 서부경찰서에 투석 후 동대신과출소 박살내면서 서구 지역을 휩쓸.</p>	거역
19:30	<p>보수동과출소앞 100명 쯤 되는 청년들이 각목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침.15명이 경찰에 체포.</p>	새벽
19:40	<p>구 남포극장 앞 출발 데모대 부영극장 앞에서 경찰의 공격. 주력은 신민당 서·동구지구당사를 지나 충무과출소 습격.</p>	유고
20	<p>미화당 앞 창선과출소 앞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 연좌시위 시작.</p> <p>전날과 달리 많은 시민 적극 가담. 대동, 동아, 성지고 학생들도 참여. 각 빌딩 위에서는 진압경찰을 향해 화분을 던지는 등 부녀자 시민 모두 시위 적극 지원. 시위대는 서부경</p>	새벽

	<p>찰서와 충무파출소를 습격. 동대신동파출소의 유리창도 박살.</p>	
	<p>국제시장에서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나온 200명의 시위대-가장 용감하고 과격한 그룹으로 대학생보다 일반인이 더 많이 섞인 집단- 메리놀 병원 앞 고갯길로 전진. 제2대청파출소 공격. 유리창 25장과 방범 오토바이 방화. 시위 군중이 눈사람처럼 커지면서 동부경찰서 관내 결판냄. 영주동 육교 앞에서 초량 뒷길로 꺾음.</p>	유고
20:20	<p>국제시장 포위망을 뚫고 나온 원정 데모대, 초량 1파출소 박살. 고관파출소로 서서히 초량 쪽으로 이동. 군중은 1천여명.</p>	새벽
	<p>부산역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대가 초량 1파출소 습격하고, 부산진역 방면으로 진출.</p>	거역
	<p>제1초량파출소 습격, 8분 후 제2초량파출소 기물 부수고 사이카 불 지름. 고관 파출소 습격 때는 1000명으로 불어남.</p>	유고
20:55	<p>국제시장 포위망을 뚫고 나온 원정 데모대, 동부경찰서 앞에서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 구호를 외치며 투석 시작.</p>	새벽
	<p>1천여 명으로 증강된 시위대가 진역 앞 동부경찰서에서 경찰과 접전. 경찰의 공세에 밀려 KBS로 후퇴한 시위대를 수십 대의 무장한 군 트럭이 덮침. 분산한 시위대는 KBS를 포기하고 2500명의 시위대를 형성하여 부산역, 시청으로 진격하면서 부산일보와 MBC에 응징을 가한 후,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격돌.</p> <p>이 시각 시내 중부세무서와 서대신3동 사무소가 박살.</p> <p>국제시장에서 포위망을 뚫고 나온 시위대, 영선고개로 진출하여 메리놀 병원 맞은편의 제2대청 파출소를 박살내고 방범오토바이를 불태움.⁹¹⁾</p>	거역
	<p>동부경찰서와 맞서 부산진역 앞에서 “독재타도!” “유신철폐!” 외치며, 유리병과 돌멩이 투석. 제2기동대 3개 소대 병력에 의해 흩어짐.</p> <p>방향을 돌린 군중들 KBS 덮침. 유리병과 돌멩이 포격으로 유리창이 깨지고 TV중계차 박살. 완전무장한 군인(계엄령 선포에 대비 시내로 배치되고 있는 중이었음)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시위대 흩어짐.⁹²⁾</p>	유고

21	충무동로터리 쪽으로 가던 수백 명의 데모대 신민당 서·동구지구당사 앞에서 4층 당사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창을 열고 손을 흔들자, “김영삼!” “김영삼!” 몇 번 외치고 충부 파출소 쪽으로 뛰어 감. 부민파출소 투석	유고
	충부세무서와 서대신 3동사무소가 시위대의 습격. 국제시장에서 경찰 포위망을 뚫고 나온 시위대 영선고개로 진출하면서 메리놀병원 맞은편의 제2 대청파출소를 박살, 방범 오토바이를 불태움. ⁹³⁾	10주년
21~22	국제시장 탈출한 데모대 대청로를 따라 부산지방법원 쪽으로 진출. 경남 도청 지남. 부용로터리를 거쳐 21시 45분경 서부서 지나며 투석. 경찰 해산 후 다시 모여 동대신동에서 시위. 중구로 이동 흑교파출소 습격.	유고
22	100명의 군중 MBC 투석	유고
22:30	300명의 군중 보수파출소 파괴	유고
23:12	경남 도청 게시판 경비실 부숨	유고
23:15	흑교파출소 쳐들어가 전화선 뽑고 유리창 38장, 현관문 2장, 국기봉, 대통령 사진, 전화기 3대 박살	유고
23:45	구덕파출소 습격	유고
24	통금시간이 다가오자 부용로터리 부근 차와 군중으로 뒤엉킴. 진압부대 한 차례 해산 후 돌아감. 데모대 다시 1000명 쯤으로 불어남. 서부서 공격. 구덕경기장 쪽으로 진출. 구덕파출소 습격. ⁹⁴⁾	유고

89) 16 항쟁은 마스크에 아무 내용도 보도되지 않음. 보도통제 상황에서도 항쟁 소식은 부산 시내와 전국으로 퍼져나감. 시내에 아침부터 경찰과 진압차량이 진을 치고 삼엄한 경계. 부산대학교는 임시휴교 공고. 경찰 기동대가 교문 통제.

90) 국제시장에서 포위망을 뚫고 나온 200여 명 원정 데모대는 메리놀병원 고갯길 앞에서 제2대청파출소를 투석으로 파괴, 방범오토바이 방화. 가장 용감하고 과격한 그룹으로 대학생들보다는 식품접객업소 종업원들과 일반시민이 더 많이 섞여 있었음.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을 흡수하여 파죽지세로 동부경찰서 관내를 결판냄.

91) 17일 시위의 특징

① 21개 파출소 파손 내지 방화. 경찰 차량 6대 전소, 12대 파손, 경남도청, 충부세무서, KBS, MBC, 부산일보, 동사무소 등이 파괴되고 투석세례. 전날에 비해 확대. 대청동 미국문화원 앞에서 2관구 사령관 찢차와 호위차들이 습격.

② 자정(18일 0시)을 기해 부산 비상계엄령 선포. 서울지역 공수부대 2개 여단이 투입되고 계엄군 진주.

92) 17일 밤 국제시장은 데모대의 주 무대이자, 데모 인력공급센터의 구실을 함. 경찰은 미국문화원, 창선파

2)-4. 10월18일 목요일

시간	내용	출처
00:00	부산지역 계엄령 선포	새벽
	부산지역 비상계엄 선포	
아침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계엄군이 각 대학교와 관공서에 배치되고 시내전역은 살벌한 기운이 감동. 부산여대생 백 여 명이 굳게 잠긴 교문 앞에서 용성거리다 시내로 나오던 중 53 명이 계엄군에 연행.	10주년
19:50	야! 하는 소리와 함께 300 여 명의 시민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왓샤! 소리를 지르며 남포파출소 쪽으로 행진. 삼시간에 2천 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남포파출소에 돌세례를 퍼부어 유리창을 박살내고 시청 쪽으로 내달림. 시청 주변에 배치된 200여 명의 공수부대와 정면으로 부딪침.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대를 향해 차렷총 자세로 돌진. 최루탄, 사과탄이 날아오고 시위대는 비 내리는 남포동, 광복동 거리로 뿔뿔이 흩어짐. 연 사흘에 걸친 부산지역의 민주항쟁은 이렇게 끝나고, 항쟁의 불길은 이웃도시 마산으로 옮겨감.	10주년
19:55	동명극장 부근 ‘야!’하는 함성과 함께 300여 명의 시민이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 남포파출소에 돌 세례. 2천 여 명이 ‘계엄반대’를 외치며 시청으로 행진. 차렷 집총자세를 한 공수부대에 의해 해산.	새벽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명극장 앞에서 시위대 ‘계엄철폐’,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며 남포파출소를 훑고 시청 앞으로 전진. 시청을 방어하던 공수부대가 2천 시위대에 최루탄과 대검 곳은 총을 휘두르며 구타. 시위대, 행인 구별 없이 잔인	거역

- , 국제시장네거리, 보수파출소 앞에 소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여 국제시장 속의 데모대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데모의 불티가 퍼지는 것을 막아보려 함.
- 93) 어디서나 이들 행동의 주체들은 학생이 아니라 영세상인, 종업원, 노동자 등 이 시대 모순의 가장 큰 담지자들이었음. 항쟁은 새벽 1시 30 분까지 계속 이어짐. 이날 21개의 파출소가 파손 내지 방화되고 경찰차량 6 대 전소, 12 대가 파손, 경남도청, 중부세무서, KBS, MBC, 부산일보 등 언론사가 투석을 당함. 자정을 기해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 계엄사령관은 통금을 2 시간 연장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한다는 내용의 포고문 제1호를 발표.
- 94) 17일 밤의 데모대는 17군데의 공공기관 건물을 습격하여 파괴했다. 언론기관 세 곳- MBC, KBS, 부산일보- ,경남도청과 중부세무서, 경찰서 두 곳, 파출소 열군데.(남포파출소,충무파출소,보수파출소,흑교파출소는 두서너 번씩 습격)

	하계 구타. 사흘에 걸친 부산지역 항쟁이 끝남. 남포동 동명극장 부근 “야!”하는 고함과 함께 누군가가 찾길로 나섬. 순식간에 300명 쯤 되는 민중이 따라 나섬. 남포파출소로 진격 투석. 시청 쪽으로 진진. 200명쯤의 공수부대 데모대를 향하여 차렷 자세로 돌격. 데모대 광복동, 남포동쪽으로 달아남.	유고
20~21	합동통신 부산지사 취재차에 시위대 돌맹이, 유리병, 몽둥이질. 보도 똑똑히 하라는 어느 고등학생의 일갈. 20시 40분까지 두 차례 더 시청에의 접근 시도 실패	유고
21:10	상황종결 ⁹⁵⁾	유고

4. 자료의 교차비교를 통한 항쟁일지와 항쟁도

1). 자료의 교차비교를 통한 항쟁일지

1)-1. 10월 15일 월요일

09:30 부산대학교는 교내 곳곳에 뿌려진 두 종류의 유인물로 술렁이기 시작. 1대(공대 이진걸 중심) 「민주선언문」을 뿌림. 2대(법대를 중심) 「민주투쟁선언문」 살포.

10:30 민주선언문을 뿌린 이진걸과 남성철은 시위대 동원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학교를 빠져나감.

10:40 선언문을 권 학생들 도서관에 집결하기 시작.

11:00 300 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들어 시위 주도자를 기다림.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정오 즈음 학생들 해산하고 짙은 여운만이 남음.

오후 정광민(경제학과 2)을 중심으로 추진된 2차 시위계획은 직·간접으로 1,2대와 관계를 맺으며 진행.

19:00 전도걸, 박준석과 16일의 시위 결행을 다진 정광민은 미리 써둔 「선언문」 초안을 놓고 유인물 제작에 들어가서 밤을 세워 500여 장 등사.

1)-2. 10월 16일 화요일

09:30 부산대, 306호 강의실 경제과 2학년생들, 정광민의 주도로 강의실을 박차고 나옴. 경영과 무역과 회계학과 학생들 합류. 「우리의 소원은 자유」를 부르

95) 10/16~10/18 사흘간 조사한 피의자 260명의 분포(이 성분 분포는 그대로 부산 시위 군중의 성분 분포이기도 하다)
부산대학생 45명, 동아대학생 5명, 다른 대학교 학생 20명, 종교인 2명, 신민당 및 통일당원 2명, 일반인 186명.

며 상대에서 도서관으로 나아감.

10:00 도서관 잔디밭에서 「선구자」, 「교가」, 「애국가」를 계속 부르며 학생 규합.

10:15 페퍼포그 차를 앞세운 진압부대의 교정 진출이 수업 중이던 학생들 자극.

10:30 캠퍼스 전역에서 모인 7천의 대열이 5백 여 진압부대와 신정문에서 결전.

11:00 구정문으로 진격한 1진 1천 여 명, 수위실 옆 담벼락을 무너뜨림. 밖으로 진출한 500여 명이 경찰의 최루탄에 돌과 음료수병으로 대항하면서 구정문 사거리에서 접전.

12:00 신정문에서 접전을 벌이던 학생들, 사대부고로 진입. 왼쪽 담장을 허물고 가두진출에 나섬. 2진 1천여 명 산업도로로 진출하여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를 외치며 온천장으로 진격.

2진 진출 15~20분 후, 600~700여 명이 3진을 형성하여 산업도로 온천장으로 향함. 밖으로 나가지 못한 2천 명의 학생들 운동장에서 30분쯤 시위. 이때쯤 구정문을 뚫고 온천장을 거쳐 사직동 원예고등학교까지 진출하여 시위하던 학생들 일부가 돌아옴. “오후 2시 부산역 집결” 말이 나뉨.

1진+ 2진은 사직동 미남로타리까지 진출. 차량 2대 30명 정도의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300여 명의 학생들 근처의 돌로써 전경들을 쫓아내고 거제리로 나아감.

13:00 부산대 학생들 교정을 나서기 시작. 고신대 동아대생들도 데모 소식 듣고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음.

14:00 부영극장 앞에서 부산대 상대·공대생 10여 명이 ‘유신철폐’를 외치자 주위에 흩어졌던 학생들 일시에 스크럼 형성. 광복동 입구에서 방어선을 치고 있던 기동 경찰대가 서서히 간격을 좁히며 행동을 개시.

15:00 고신대와 동아대생들도 시내로 집결. 3천 명 이상의 시위대가 형성. 동아대 파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시위대는 시위대를 증강시켜, 국제시장 안으로 진입. 시위대 앞에 태극기가 등장. 시민들의 호응 속에 대대적인 가두시위 전개.

경찰의 최루탄과 방망이에 후퇴한 시위대는 미문화원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수십 개의 시위대로 분산하여 경찰에 대항.

16~17 당시 중부경찰서 상황실에 보고된 8개 지역의 규모가 큰 시위대.⁹⁶⁾ (그림 4 참조)

[4:00] 용두산공원에 학생들과 섞여 불량배로 보이는 청소년 4명이 2홉짜리 초산병을 들고 서성대고 있음.

[4:05] 제1대청과출소 앞에서 300명, 부산우체국 앞에서 100명이 데모.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름. 동아테파트 앞에서도 시민 응원 속에 데모.

96) 내용은 당시 시위대의 시위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16일 16~17시에 보고된 시위 상황만으로 따로 항쟁도를 그려보았다. 이 그림으로 16일, 17일 양일에 걸친 시내 시위 양상의 일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4:20] 옛 시민관 자리에서 중앙동사무소 쪽으로 데모대 진행. 그 곳에서 용두산 공원으로 오르려다가 밀려남. 다시 동사무소 앞에 집결. 500명이 어깨동무하여 부산우체국 쪽으로 행진.

[4:25] 부산우체국에서 제1대청과출소 쪽으로 데모. 그 가운데 300명은 용두산 공원으로 향함.

[4:30] 창선동 국민은행 앞에 50명.

[4:35] 옛 남포극장 앞에서 300명.

[4:50] 동아아케이드 앞에서 200명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며 시위.

[5:00] 서구 동대신동 쪽에서 동아대생들이 5-10명씩 흩어져 흑교과출소 앞을 지나 시내 쪽으로 가고 있음.

17:00 하기식 애국가가 울려 퍼짐. 학생과 시민들 애국가 합창. 이후 시위 양상이 더욱 격렬해지기 시작하면서 시내로 인파가 몰림.

17:40 부영극장 앞 언론의 취재차량(관제언론이 최초의 공격 대상으로 등장)이 시위대의 투석에 밀려남.

미화당 앞 길 경찰 최루탄 발사로 대열이 흩어짐. 50~200명의 소규모 수십 개의 시위대로 분산. 국제시장·대청동·보수동 일대에서 계속적인 시위.

18:00 거세었던 시위가 소강상태에 빠짐. 학생과 경찰 모두 지침. 이 때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음료수를 상자 채 들고 와서 일일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보임.

19:00 5만 여 명에 이르는 인파가 시청 앞에서 충무동에 이르는 4차선 거리를 꽉 메움. ‘독재타도’, ‘유신철폐’, ‘언론자유’, ‘김영삼 총재 제명을 철회하라’ 구호가 퍼짐.

“5만의 대회전”은 이후 상황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19시 이후로는 게릴라전 양상으로 전개.

20:40 500명 가량의 군중이 남포과출소 습격 후 남포동 골목으로 후퇴. 교통체증으로 도로에 갇힌 기동순찰차(부산 1가 1163호 포니)를 공격하여 불길에 휩싸임. 작전 차(부산 7가 1335호)도 공격하여 불길에 휩싸임.

22:00 경찰, 10시 통금 발표. 부평과출소 박살.

22:30 보수과출소 군중들이 파괴. 각 방면으로 진출한 항쟁 대열에 의해 과출소가 연쇄적으로 박살. 한 시위대가 부수고 간 후 다른 시위대가 남은 것을 다시 파괴.

22:50 제1대청·흑교·중앙과출소 습격, 충무 과출소 습격.

23:40 중부서 앞의 300여 군중 영주동 쪽으로 흩어져 감.

24:00 부영극장과 동아아케이드 앞의 군중도 스스로 해산.

1)-3. 10월 17일 수요일

09:00 부산대 휴업령으로 구정문 앞에 1천 여 명의 학생들 모임.

10:30 구정문을 중심으로 1천 여 명의 학생들이 집결하여 대열을 지은 후, 금정국교를 지나 식물원 방면으로 진출.

식물원 입구에서 기동대와 격전 후 분산한 학생들 시내진출에 나섬.

11:30 동아대, 본관 계단 밑 잔디밭에 학생들 모이기 시작.

12:00 동아대, 시위 학생들 500명으로 늘어남.

13:00 동아대, 정법대 2학년 150명이 5~6교시 교련수업 거부. 운동장으로 향함. 정외과 2학년생들 합세. 200명의 학생들 운동장을 돌기 시작. 교내에 대기중이던 기동대 3개 소대가 페퍼포그와 사과탄을 던지며 쳐 올라옴.

주변에 있던 2천 여 명의 학생들 흩어짐.

14:00 16일 데모에 적극적이었던 고신대 학생들 광복동으로 모여 듦.

14~16 동아대, 잔디밭에 모인 학생들 「애국가」, 「봉선화」, 「통일의노래」를 부름. 학교 측 학생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하자, ‘저녁 6시에 남포동에서 모인다!’는 소문으로 데모시간 약속.

15:00 정오부터 시내 다방, 술집, 극장 등에 진을 치기 시작한 학생들, 국제시장·부영극장으로 오후 3시쯤 집결 시작.

15:45 옛 시민관 자리 꽃밭에 80명의 학생들 발견. 경찰 긴장.

16:20 국제신문 정류소, 남포동 정류소, 대청로 정류소에서 하차한 학생들의 물결이 광복동과 국제시장으로 흘러 감.

18:00 부영극장 앞 육교 주위에는 운집한 군중들이 하기식 애국가⁹⁷⁾를 부동자세로 경청. 이윽고 애국가 방송이 끝나자 군중들 속에서 육성의 군중들 속에서 육성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이를 신호로 몇 갈래의 시위대가 형성. 남포동과 자갈치시 장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며 시위를 벌임.

18:30 남포동에 모인 군중들 ‘모여라!’는 신호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시위대 형성.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외치며 두 갈래로 나뉘어 국제시장과 충무동 방면으로 진격. 시내 곳곳에 시위 대열이 형성. 200~300명 규모의 시위대는 대학생, 일 반인, 청년,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구성.

무수한 갈래의 시위대는 중구, 동구, 서구 지역의 거의 모든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기관 공략.

충무동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대는 시청 방면으로 전진하여 경찰과 대격전을 벌임.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부산역과 운동장 방면으로 진출.

19:25 운동장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대가 충무파출소를 박살내고, 서부경찰서에 투석후 동대신파출소 박살내면서 서구 지역을 휩쓸.

19:30 보수동파출소 앞 100명 쯤 되는 청년들이 각목을 휘두르며 대청1파출소

97) 17 국기 하기식을 밝힌 자료는 ‘10주년’이 유일하며 오후 6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거역’은 16일의 국기하기식을 오후 5시로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고증이 필요하다.

쪽으로 달려가다, 15명이 경찰에 체포.

19:40 구 남포극장 앞 출발한 데모대는 부영극장 앞에서 경찰의 공격을 받음. 주력은 신민당 서·동구지구당사를 지나 충무파출소 습격.

20:00 국제시장에서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나온 200명의 시위대가(가장 용감하고 과격한 그룹으로 대학생보다 일반인이 더 많이 섞인 집단)메리놀 병원 앞 고갯길로 전진. 제2대청파출소를 공격하여 유리창 25장과 방범 오토바이에 방화. 시위 군중이 눈사람처럼 커지면서 동부경찰서 관내를 결단냄. 영주동 육교 앞에서 초량 뒷길로 꺾음.

20:20 부산역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대, 제1초량파출소 습격. 8분 후 제2초량파출소의 기물을 부수고 사이카를 불 지름. 고관 파출소 습격 때는 1천 여 명으로 불어남.

20:55 1천 여 명으로 증강된 시위대가 동부경찰서와 맞서 부산진역 앞에서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외치며, 유리병과 돌맹이 투석. 제2기동대 3개 소대 병력에 의해 흩어짐. 방향을 돌린 군중들 KBS 덮침. 유리병과 돌맹이 포격으로 유리창이 깨지고 TV중계차 박살. 완전무장한 군인(계엄령 선포에 대비 시내로 배치되고 있는 중이었음)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시위대가 흩어짐.

분산한 시위대는 KBS를 포기하고 2천 5백 여 명의 시위대를 형성하여 부산역, 시청 방향으로 진격하면서 부산일보와 MBC에 응징을 가한 후, 시청 앞에서 대 대적인 격돌.

21:00 부민파출소 투석. 중부세무서와 서대신3동사무소를 시위대가 습격.

21~22 국제시장 탈출한 데모대가 대청로를 따라 부산지방법원 쪽으로 진출. 경남 도청 지남. 부용로터리를 거쳐 21시 45분경 서부서를 지나며 투석. 경찰에 의한 해산 후 다시 모여 동대신동에서 시위. 중구로 이동하여 흑교파출소를 습격.

22:00 100명의 군중 MBC 투석.

22:30 300명의 군중이 보수파출소 파괴.

23:12 경남 도청 게시판 경비실 부숨.

23:15 흑교파출소 쳐들어가 전화선을 뽑고 유리창 38장, 현관문 2장, 국기봉, 대통령 사진과 전화기 3대 박살.

23:45 구덕파출소 습격.

24:00 통금시간이 다가오자 부용로터리 부근은 차와 군중으로 뒤엉킴. 진압부대가 한 차례 진압 후 돌아가자, 데모대 다시 1천 여 명쯤으로 불어남. 서부서 공격. 구덕경기장 쪽으로 진출. 구덕파출소 습격.

1)-4. 10월 18일 목요일

00:00 부산지역 계엄령 선포.

아침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계엄군이 각 대학교와 관공서에 배치되고 시내전

역은 살벌한 기운이 감동.

오전 부산여대생 백 여 명, 시내로 나오던 중 53명이 계엄군에 연행.

19:55 동명극장 부근에서 ‘야!’하는 함성과 함께 300여 명의 시민이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 남포파출소에 돌 세례. 2천 여 명이 ‘계엄반대’를 외치며 시청으로 행진. 차렷집중자세를 한 공수부대에 의해 해산. 20:40까지 두 차례 더 시청으로 접근을 시도하지만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실패함.

21:10 상황종결.

2). 자료의 교차비교를 통한 항쟁일지를 바탕으로 한 항쟁도

2)-1. 10월 16일 부산대학생 가두시위 항쟁도 (그림 4)

2)-2. 10월 16일 16~17시 시내 시위 항쟁도 (그림 5)

2)-3. 10월 16일 시내 시위 항쟁도(그림 6)

2)-4. 10월 17일 시내 시위 항쟁도 (그림 7)

2)-5. 10월 18일 시내 시위 항쟁도 (그림 8)

5. 결론

본 연구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의 기초 작업으로서 항쟁이 전개된 실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쟁이 전개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항쟁일지를 작성하고, 항쟁지도(79년 당시의 부산 지도⁹⁸)를 바탕으로 하였다⁹⁹)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작성된 항쟁일지와 항쟁도를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종합하여 시공간의 이동상을 시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항쟁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다.

지극히 제한된 일차사료의 선택에는 나름 신중한 기준을 설정하여 선별했다.

항쟁일지를 작성하는 데에는 선정된 자료들을 상호 교차 비교함으로써 고증했다.

이리하여 작성된 최종적인 항쟁일지를 바탕으로 항쟁지도 5장을 제작하였다.

특히 (그림4)는 당시 시위대의 시위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16일 16~17시에 보고된 시위 상황만으로 따로 항쟁도를 그려보았는데, 이 그림으로 16일, 17일, 18일에 걸쳐 벌어진 시내 시위 양상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부산시경의 <79부마사태의 분석>¹⁰⁰이란 보고서를 보면 데모의 특이양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야간 구분 없이 도시게릴라식 폭도화”라는 구

98) 당시 주요 지점인 경찰서와 파출소가 당시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평생을 부평동에서 거주하신 조종제 선생님(64세)의 기억과 증언에 의존하였다.

99) 보고서에 사용된 지도는 1979년 당시 국립지리원이 제작한 지도이다. 국토정보지리원 김방호선생님의 협조를 얻어서 확대 출력한 것으로 1:5000 지역별 세부도 여러 장을 이은 것과, 1:50000 부산 전도가 사용되었다.

100)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10주년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71~72쪽.

절이 있다.

시경에 보고된 시위형태를 우리는 (그림4)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시위의 방식이 경찰 진압대를 교란시킬 만큼, 산발적이고 동시다발적¹⁰¹⁾으로 일어났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해보면 16일 시위와 17일 시위의 명백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시위의 방식과 진행이 국지적인 형태를 벗어나 점차 시위 지역을 넓혀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일자 국내 신문-이 부분은 앞에 살펴본 대로이다-들이나 방송이 16일의 격렬한 시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자, 17일의 시위가 더 과격해지고 범위도 점차 넓어져 간 것으로 보이며 언론기관을 향한 공격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항쟁의 전체상을 시각화하여 아카이브 전시로까지 연결시킨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다. 4가지 자료만으로 한정해서 교차비교를 하다 보니, 다른 내용의 서술이나, 추후에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서두에도 밝힌 바와 같이 부마항쟁은 문서 등의 형태로 남아 있는 사료가 부족하다. 당국의 조사 기록, 재판 기록 등이 나온다면 훨씬 풍부하고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적 기록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나마 차선의 방책으로 미시사적 접근법인 구술 자료의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의 생산 시기에 집착하다보니 구술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다음 연구에 있어서의 과제라고 하겠다.

부마항쟁을 다룬 외신을 검토하던 중 아사히신문(1979년 10월 22일)에서 흥미 있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마산의 서쪽에 있는 진주에서도 19일 밤 약 1천 명의 학생 데모가 있었다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산과 같은 날에 연쇄적인 시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탐문 중 당시 대동공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분으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는 진주공설운동장으로부터 남강을 건너야 하는 훨씬 아래쪽인 도동에 있었는데, 운동장을 향해 가두 행진에 나섰다는 증언이다. 부산 마산을 이어 주변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될 조짐과 직접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의 최종태¹⁰²⁾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월 26일 통영수전 학생들이 교내에서 황남5거리를 거쳐 남망산공원까지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던 경험을 말하고 있다.

단편적이거나 이러한 보도나 증언은 부마항쟁이 전국적 반유신 외침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항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방증 자료들으로써, 주변지역으로의

101) 시위형태에 대한 증언은 당시 시위 참여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3,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 참고)

102)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3,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 536~548쪽.

항쟁 파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수행해야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사회연구소는 지극히 부족한 자료와 재원을 바탕으로 이 사업에 감히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정론적 진상규명 작업의 첫 발걸음으로 부마민주항쟁의 항쟁일지와 항쟁도를 작성해 보았다. 부마항쟁의 전체상을 그려낼 의도로는 처음으로 작성하게 된 이번의 항쟁일지와 항쟁도는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수집한 각종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첫째 작업의 결과는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퍼즐을 맞추기는 커녕 앞으로 추진해나갈 정론적 진상규명의 방향, 즉 앞으로의 퍼즐에서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가 어느 정도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성과는 부끄럽기 그지 없는 졸작이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부마항쟁 관련 제 단체 및 개인, 그리고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과 전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많은 책교를 감히 청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부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1984, 「올려라! 부마항쟁의 새 깃발을」, 『새벽함성』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5, 「10월 부마민주항쟁사」,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 조갑제, 1987, 『유고! : 부마사태에서 10.26정변까지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함성과 총성의 현장』 1·2, 한길사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10주년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 이수연, 1985, 「부마사태의 전모를 밝힌다」, 『신동아』, 1985 5월호.
- 이수연, 2013,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으로: 대안적 가설을 찾아서」, 「부마에서 광주로」(부마민주항쟁 34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조정관, 2008, 「유신체제, 부마항쟁,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3·15의거 48주년 및 부마민주항쟁29주년 학술토론회자료집)
- 차성환, 「부마항쟁과 한국언론」, 『항도부산』 제27호
- 차성환, 2009,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홍순권, 2011,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제27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 김선미 외, 2003, 『부산민주운동사』 민주공원
- 민주공원 편, 2003,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민주공원
- 이은진, 2008,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육군고등군법회의자료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서출판 불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돌베개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엮음, 2013,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9, 『부마민주항쟁의역사적재조명-부마민주항쟁30주년기념』, 민주공원.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08, 『부산 민중의 삶과 정치의식』, 민주공원.
-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부마항쟁」 『1970년대 민주화 운동』 IV, 서울, 동광출판사

- 정광민, 1989, 「부마항쟁 10주년 되새겨보는 역사적 의미」 『사회와사상』 통권 15호
- 박철규, 1999, 「5·18민중항쟁과 부마항쟁」 『5·18은 끝났는가』 (한국학술단체협의회 편), 푸른 숲
- 김석준, 2003, 민주공원, 「부마항쟁의 사회문화적 배경」,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김진영,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과 정치적 배경」,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박철규,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과 학생운동」,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손호철,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적 배경」,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오재환,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과 부산지역사회의 변화」,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이행봉,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의 개관, 성격 및 역사적 의의」,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정주신,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주무현,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과 노동운동」,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차성수,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과 부산정치지형의 변화」,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홍장표·정이근, 2003, 민주공원, 「부마민주항쟁의 경제적 배경」,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참고자료

(표 3)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와 국제신문 기사(79.11.29) 참조로 정리.

총구속자 1563명	군법회의회부 87명	공소취하 67명		
		형선고 20명	학생 7명	이진걸(20,부산대) 전도걸(21,부산대) 이동관(25,동아대) 김백수(23,동아대) 한양수(19,경남대) 장정욱(24,경남대) 옥상렬(18,경남공고)
	일반 13명		황창문(26,노동) 황상운(24,공원) 노승 일(27,서적상) 김영일(24,엠네스티 부산 지 간사) 박승민(20,직공) 오해룡(23,무 직) 김창섭(20,무직) 최인국(23,무직) 이용철(24,목공) 주대환(25,무직) 마오 성(17,공원) 지경복(17,공원) 윤정오 (45,상인)	
	일반경찰송치 31명 (전원 공소취 하로 석방 -79년 12.8)	부산	정광민(부산대) 강명규(동아대) 황성권(외국어 대)	
		마산	정성기(경남대) 정인권(경남대) 옥정애(경남대) 최갑순(경남대) 박인중(경남대)	
	즉심 651명	확인불가		
	훈방 792명	확인불가		

(그림1) 1979년 10월 18일 부마항쟁 관련 보도 전문

79년 10월 18일

東亞日報

釜山에 非常戒嚴

大學生 등 소란으로 18일 0時 기해

불순분자 輕舉妄動 拔本

朴大長 釜山 釜山사태 기본질서 위협

大學休校·밤 10時 通禁

令官에 朴贊勳中將

金文公 深夜臨時閣議 후 발표

釜山·東亞大生 16·17연이틀 都

警察 56명·학생·일반市民 등 파출소 21곳 警備車輛 18대 政權타도 주장 道廳·放送局

政府 기묘인反省을

新民 現地 調査團 파견키로

校門 밖 경찰 저기 오후 西面·光復



사상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경찰.

〈1면 2행〉

(그림2) 1979년 아사히신문 부산항쟁 관련보도 전문1

釜山でデモ、暴動状態

学生と警官隊衝突

市民巻き込み多数負傷

【ソウル十七日ハルビン特派員】ソウルに伝えられた情報によると十六日夜、韓国第二の都市釜山市で学生約三千人が市内の中心街をデモ、警察の派出所に投石したり、パトカーに放火するなど、暴動状態になった。その場で学生、市民約二百八十人が逮捕され、警官に約五十人、学生、市民側にも多数の負傷者が出たという。



韓国政府はこの情報をいささか公表せず、韓国の新聞には固く報道を禁じているが、釜山からの情

報によると、十六日午後八時ごろ、国立釜山大を中心に、釜山市内の私立東亜大など約三千人の学生が釜山市役所付近に三五々集まり、「維新憲法撤廃」などを叫びながら、光復洞、南浦洞など市内の目抜き通りをデモ行進、警官隊と激しく衝突した。

その後、暴動状態となり、学生たちは警察の派出所や新聞社などを投石、さらに警官隊のパトカーを叩き壊すなど、市民も巻き込まれ、多数の負傷者が出たという。十一カ所の派出所が襲撃され、投石でガラス戸が割れた。また、この学生の騒動に一部の市民も加わり「野党弾圧をやめろ」などを叫んで投石に加わった。

釜山市は、伝統的に野党勢力が強いところであり、国会議員資格をばく奪された金法三・新民党總裁の出身地でもある。この日、午前十時ごろ、国立釜山大で学生デモが行われ、一部の学生が街頭に出てデモ行進をしたが、この時は間もなくかけつけた警官隊によって解散させられた。学生たちのこの市内デモは、このあと警察の目をかすめて計画

されたものらしい。韓国では、九月初めから大邱市内で啓明大生が市内デモを行ったのをはじめ、ソウル大、梨花女子大などで学生の校内デモが続いていた。だが、市民を巻き込む形でのこのような暴動的なデモに発展したのは、これが初めてである。

日本と対

江崎通産相らの招きで来日したアミノ首相閣連れのオダイバ石油相(石油輸出国機構OPEC)は十七日午前、大平首相は

(그림2) 의 번역

부산에서 데모, 폭동사태

학생과 경찰 충돌

시민 포함한 다수 부상

【서울 17일 = 藤高 특파원】

서울에 전해진 정보에 의하면 16일 밤, 한국 제 2의 도시 부산에서 학생 약 3천여 명이 시내 중심가에서 데모, 경찰 파출소에 투석하고 경찰 순찰차에 방화하는 등 폭동 상태가 발생했다. 학생, 시민 약 280명이 체포되고, 경찰 측 약 50명, 학생·시민 측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정보를 일체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신문에 여전히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16일 오후 8시경 국립 부산대를 중심으로 부산시내의 사립 동아대 등 약 3,000명의 학생이 부산시청 부근에 삼삼오오 모여 「유신헌법 철폐」 등을 외치면서 광복동, 남포동 등 시내 중심가를 행진,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다.

그 후 폭동 상태로 변하면서 학생들은 경찰의 파출소 및 신문사 등에 투석하고 경찰의 순찰차 3대를 뒤집어엎어 방화했다. 또한 민간 방송국의 취재 차도 파괴되고, 사진 기자의 카메라가 탈취 당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러한 소요 사태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오전 0시 무렵까지 시내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한다. 11개 소의 파출소가 피습, 투석으로 창문이 박살났다.

또한 이 학생 소요에 일부의 시민들도 「야당탄압 중지하라」 등을 부르짖으며 가담했다.

부산시는 전통적으로 야당 세력이 강한 곳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출신 구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0시경 국립 부산대에서 학생 데모가 일어나 일부 학생들이 가두로 진출해 데모·행진을 했지만 즉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해산되었다. 학생들의 이날 시내 데모는 그 이후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계획된 것 같다.

한국에서는 9월 초부터 대구시내에서 계명대생이 시내 데모를 한 것을 비롯해 서울대, 이화여대 등에서 학생들의 교내 데모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동참한 이와 같은 폭동적인 데모로 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釜山騒乱 韓国政府に衝撃

市民の参加を重視

生活上の不満ふき出す

【ソウル十七日(藤高特派員)】十六日夜、釜山市内で起きた学生デモは、韓国政府に多大な衝撃を与えたが、それは今度のデモの参加者の数の多さではない。警察の派出所を襲撃し、パトカーに放火するという行動の規模でもない。デモ参加したのが学生だけでなく、一般市民が多数加わった、という事実だ。韓国が旧体制になってから、学生のデモは数々起っている。だが、これほど多くの市民を巻き込んだ事件は、これほどなかった筈だ。だからである。

貧富の格差解消掲げる

十七日現地の釜山に乗り込んだ「左派」が、これは騒乱事件(釜山騒乱)である。市民生活に不安を与え、

経済活動に大きな打撃を与えたと事態の深刻さを認め、「連帯者の参加は個人だ」と一般市民の参加の多さを反響している。

今度のデモ騒ぎに参加した市民の主体は、またさうでもないが、現地の情報によれば、大規模な失業した再修生(卒業生)や、若いサービス業の従業員や派遣労働者が多かった、という。だが、韓国の現在の状況下では、これらの市民たちが主たる間に「共同」の討議を立って生活改善、生活上の不満が、学生たちのデモ活動に燃焼され、暴動状態になったものさだ。

大衆の

副全



17日、釜山市役所で記者会見し、デモ参加者の逮捕などについて語る韓国の呉道春内相 —A P

今度のデモの性格がこれまでとは違っているのは、学生たちが掲げた主張である。維新憲法の徹底を要求しているのは、従来の学生デモと共通しているが、このほ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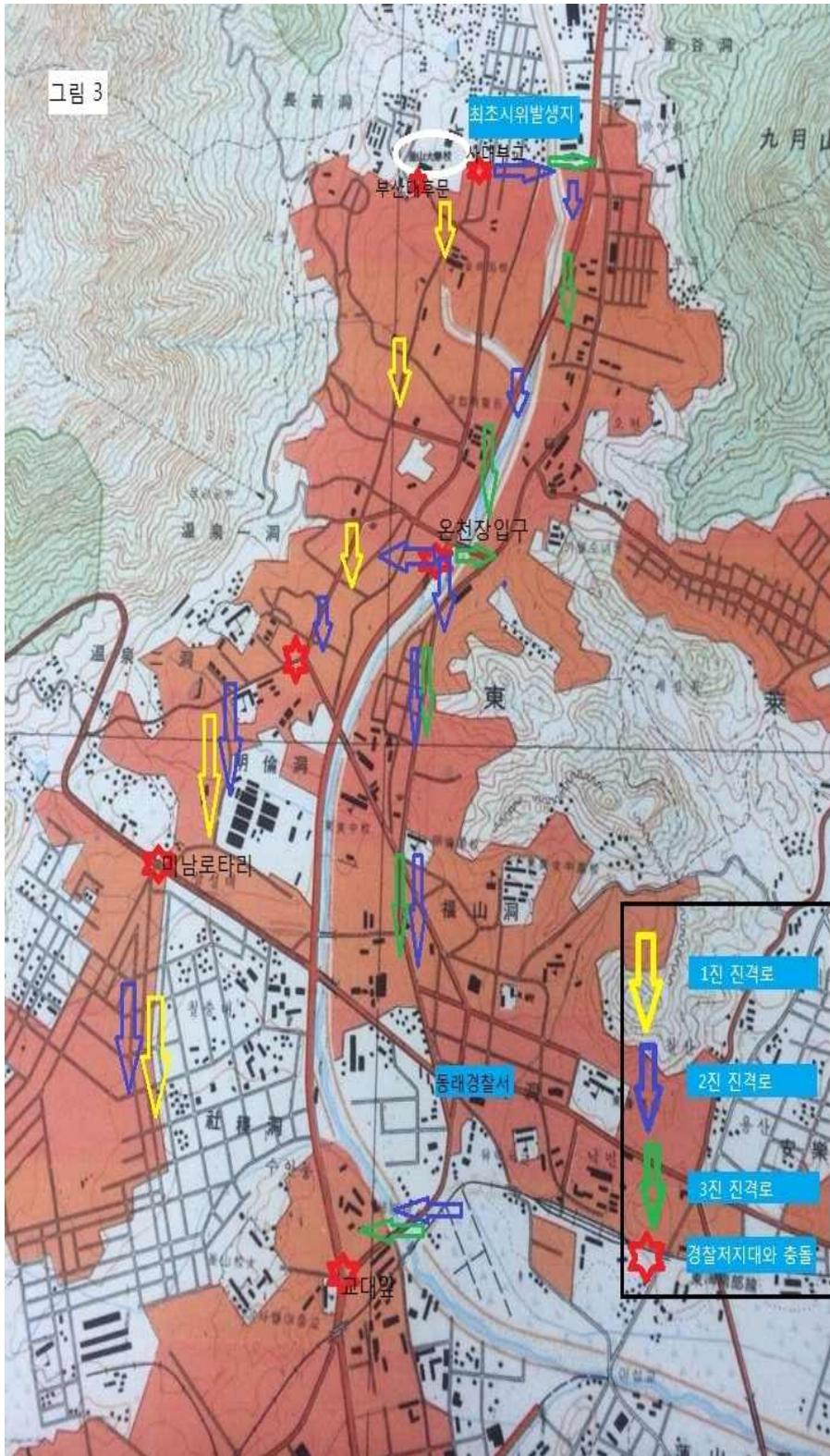
【北平十七日(藤高特派員)】韓林全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委員長十七日、人民大会堂で中央ジャーナリスト同圓期中中を会見した際、大衆の農業政策に懸

(그림3) 의 번역

부산 소요, 한국 정부 충격 시민의 참가 중시, 생활상의 불만 표출

【서울 17일 = 藤高 특파원】 16일 밤 부산시내에서 일어난 학생데모는 한국정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번 데모의 참가자 수가 많다거나 경찰 파출소를 습격하고, 순찰차에 방화하는 등 행동의 과격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데모에 참가한 사람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다수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현 체제로 바뀌고 나서부터 학생데모는 수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처럼 다수 시민이 참가한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던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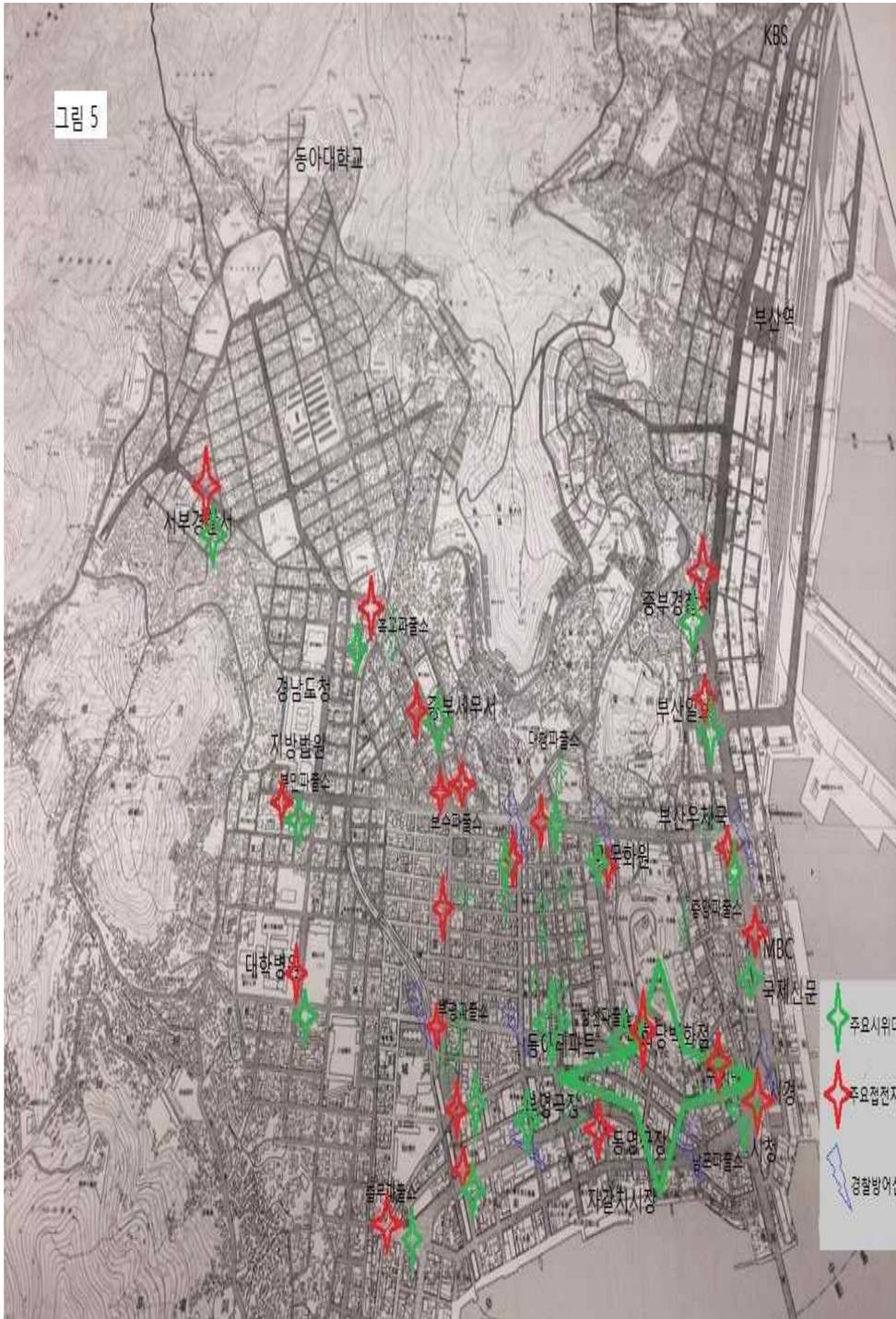
(4) 10월 16일 부산대학생 가두시위 항쟁도



(그림 5) 10월 16일 16~17시 시내 시위 항쟁도 중부경찰서 상황실에 보고된 8개 지역의 규모가 큰 시위대



(6) 10월 16일 시내 시위 항쟁도



(그림 8) 10월 18일 시내 시위 항쟁도

